

金呂珠 教授指導
碩士學位請求論文

朝鮮後期 假傳 研究

-英・正祖代 中心으로-

2005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許志暎

朝鮮後期 假傳 研究

-英・正祖代 中心으로-

金呂珠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11월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許 志 暎

認 准 書

許志暎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본 論文은 朝鮮後期 英·正祖代의 가전 작품을 중심으로 당시의 문학적 배경과 주요 작품의 분석을 통해 그 시기 가전의 文學的 特性을 고찰하여 朝鮮後期 假傳의 文學史的 意義를 밝히는 연구이다.

앞으로 전개할 가전의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가전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밝히고 1) 豫備的 考察 2) 朝鮮後期 假傳의 文學的 特性 3) 가전의 文學史的 意義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적 고찰에서는 가전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가전의 전개 양상을 살펴 보았다. 가전의 개념을 ‘傳’에서부터 찾아본 후, 가전의 특성인 模擬性, 遊戱性, 敎訓性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고려 말 임춘의 <국순전>·<공방전>이 창작되었던 시기부터 임진왜란까지의 기간을 고려와 조선전기로 나누어 고려 가전과 조선전기 가전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가전의 문학적 특성에서는 분석할 다섯 작품의 창작연대인 조선후기 영·정조대의 문학적 배경을 살펴본 후, 이 시기 가전의 주요작가와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경화세족의 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문학적 배경을 조명해 보고, 이전 시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문학적 특징을 밝혔다. 문학·사상적으로 이단이라는 지목을 받았지만 문장에 능했던 趙龜命의 <烏圓子傳>, 진솔하고 개성적인 문장으로 알려진 李德懋의 <管子虛傳>, 당대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육경고문에 가까운 文을 지었던 李頤淳의 <花王傳>, 평생 科詩와 같은 擬古文에 심열을 기울였던 李羲老의 <南靈傳>, 그리고 小品文 창작에 심열을 기울였던 李鈺의 <南靈傳>을 중심으로 가전 작

품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영·정조대 가전의 문학적 특징을 文人層의 다변화와 鬱憤吐露, 個性的 作家意識의 표출, 癖·趣을 통한 自娛의 추구로 나누어 밝혔다.

가전의 문학사적 의의에서는 전 장에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가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조선후기 가전에는 첫째 시대와 현실에 대한 비판·울분·냉소가 담겨있었다. 둘째 개성적인 작가의식이 표출되어 있었다. 셋째 自娛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볼 때 조선후기 가전은 작가의 독창성과 개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문학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가전이 효용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에서 문인들의 독창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문예적 성격의 문학 장르로 확대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여기에 조선후기 가전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본고에서 조선후기 가전의 문학사적 의의가 가전이 효용적인 문장에서 발전하여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문인들의 독창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순수 문학장르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目 次

論文概要

I. 序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史 및 方法	3
II. 豫備的 考察	9
1. 假傳의 概念 및 特性	9
2. 假傳의 展開 樣相	16
III. 朝鮮後期 假傳의 文學的 特性	20
1. 英正祖代의 文學的 背景	20
2. 作品論	28
1) 趙龜命의 <烏圓子傳>	28
2) 李德懋의 <管子虛傳>	37
3) 李頤淳의 <花王傳>	45
4) 李羲老의 <南靈傳>	50
5) 李 鈺의 <南靈傳>	56
3. 文學的 特徵	62
1) 文人層의 多變化와 鬱憤吐露	62
2) 個性的 作家意識의 표출	65
3) 癖趣를 통한 自娛의 추구	69

IV. 假傳의 文學史的 意義 72

V. 結論 75

參 考 文 獻

ABSTRACT

附 錄

I. 序 論

1. 研究目的

假傳은 高麗末 武臣政權 時期에 처음 창작된 이후, 근세까지도 그 창작이 이어져왔던 문학 사상 독특한 장르이다. 이 장르는 사물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敘事文學으로 술·돈·대나무 등과 같은 事物을 유심히 관찰하여 그 유래와 쓰임새를 세밀하게 살펴 사물을 擬人化하여 이야기를 假構하는 창작물이다. 대상에 대한 미세한 관찰과 다양한 典故를 풍부하고 다채롭게 활용하는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또한 나름대로 대상에 대한 功過를 재단하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문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며, 이러한 문인들의 관심은 고려 말 새롭게 등장한 新興士大夫들의 취향을 나타낸 것으로 處事接物의 사고방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특히 무신집권 이후에 失勢한 문인들은 사회적 현실에서 도피하여 그동안 출사를 위해 닦았던 문예적 기량을 諷諫이나 破閑으로 울분을 달래거나, 또는 陰喻로 戒世懲人하는데 발휘하였는데, 가전이라는 문예양식을 수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당대의 지성인인 가전 작가들은 그들의 理想과 鬱憤을 토로하고, 儒家的 思想과 理念을 가전에 투영시켜 현실을 諷刺하는 목적으로 가전을 창작한 것이다.

朝鮮前期로 들어와서는 보다 다양한 문인들에 의해 다양한 가전 작품이 창작되어지는데, 그 형식과 내용은 고려 말의 전통적 양식을 따른다. 보다 확대된 대상물을 의인화하였고, 戲筆的 성향의 가전도 창작되었다는 점을 제외하

고는 前代와 같은 전통적 양식의 가전이 창작되었다. 즉 儒敎的 觀念에 입각하여 인간의 기본적 윤리를 드러내면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의 가전이 그 맥을 면면이 이어 온 것이다. 假傳의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王道를 실현하고 存心養性하고자 하는 儒家的 道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가전 작품에는 傳奇小說 같은 고소설에서 보이는 志怪나 애정갈등의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老莊이나 佛家의 사상도 특정 몇몇 작품¹⁾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직 儒家의 사상, 특히 군신간의 忠 또는 선비로서의 德을 강조할 뿐이다. 이것이 가전의 문학적 부흥에는 혹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르지만, 가전이 그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문학사적인 위치를 이루게 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임진왜란 이후 봉건적 사회질서가 붕괴되면서 서민의식이 성장하고 또한 明·淸의 문화가 유입되어 확산되면서 지식인과 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되었고 그들의 사상과 인식도 보다 자유롭고 개성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들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변화는 문학에도 영향을 끼쳤고, 이는 산문 문풍에도 변화를 가져왔음이 당연하다. 이러한 변화는 가전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선후기의 문학적 배경을 조명하여 당시의 문학적 특징을 밝히고 가전의 주요 작가의 생애와 문학적 성향을 바탕으로 가전 작품의 문학적 특징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해 조선후기 가전의 문학적 특징을 고찰함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當代의 가전이 시대적으로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문학사에서의 假傳史를 재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慧諶, 『曹溪詩集』 <竹尊者傳>·<氷道者傳>, 부처의 도를 강조하고 깨닫게 하고 있다.

2. 研究史 및 研究方法

고려 말 林椿의 <孔方傳>·<麴醇傳>에 의해 그 첫 선을 보인 假傳은 비록 그 작품이 『東文選』에서 처음 실리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假傳’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다만 작품의 분류를 ‘傳’ 또는 ‘제고’에 넣었을 뿐이었다.

假傳의 어원을 우리 문학사 연구에서 찾아보면, 金台俊의 『朝鮮小說史』에서 언급된 ‘假傳體小說의 集大成’이란 문장²⁾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김태준은 <花史>의 장르를 가전체 소설로 규정하면서 ‘假傳’이라는 말을 처음 언급하였다. 그 후 본격적으로 조운제의 『국문학사』³⁾에서 고려 설화문학을 논할 때, ‘가전체’라고 하여 논급되었다.

그러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가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신기형이 가전에 대하여 처음으로 논문⁴⁾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 ‘가전’이란 용어에 정확한 의미부여를 하지는 못하였다.

선행연구는 가전의 장르규정과 명칭규정의 문제에서부터 주요 작품의 해석·분석·비교 그리고 문학사적 의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 발표되어진 것이 수십 편에 이르고 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장르 규정문제에 관한 연구는 ① 가전을 서사문학의 한 갈래로 보고 설화문학, 의인문학 등의 범위 안에서 본 연구⁵⁾, ② 교술문학장

2) 金台俊, 『朝鮮小說史』, 학예사, 1939, 74면, “종래의 가전적 수법에서 백보를 나아가 개인의 의인화한 전기체에서 다시 複稗로 장편에까지 연인하여 遲縱한 奇思幻想을 화회에 의하여 정치흥망을 논한 것은 특유의 가치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다시 말하면 假傳體小說의 集大成이라고 하겠다.”

3) 조운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54

4) 신기형, 「가전체문학논고」, 『국어국문학』 15·16, 국어국문학회, 1956

5) 前揭論文

르로 규정한 연구⁶⁾, ③ 전의 유형의 하나로 규정한 연구⁷⁾ 등이 있다.

명칭 규정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① 가전체·가전체문학⁸⁾, ② 가전체 소설⁹⁾, ③ 의인문학¹⁰⁾, ④ 의인소설¹¹⁾, ⑤ 가전¹²⁾ ⑥ 의인체 산문¹³⁾ 등으로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전에 관한 최초의 논의는 1956년에 신기형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신기형은 「가전체문학 논고」¹⁴⁾에서 ‘가전체 문학은 설화문학과 소설문학을 연결시키는 과도기적인 형태로 고대소설의 모체를 형성한 하나의

김광순, 「한국 의인문학의 사적 계보와 그 성격」, 『어문학』 16·17, 한국어문학회, 1967

주종연, 「고려 가전체고」, 『한국 고전문학 장르 연구』, 한신문화사, 1993

6) 조동일, 「가전체의 장르 규정」, 『장암지현영선생화갑기념논총』, 호서문화사, 1971
——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94

7) 조수학, 「가전연구」, 『어문학』 29, 한국어문학회, 1973
—— 『한국의 탁전과 가전』, 영남대학교출판부, 1987

8) 신기형, 「가전체문학논고」, 『국어국문학』 15, 국어국문학회, 1956
이상익, 「가전체 문학론에 대한 비판」, 『국어교육』 14, 1968
이정탁, 「고려 가전체 연구」, 『국어국문학』 84, 국어국문학회, 1980
조동일, 「가전체의 장르규정」, 『한국문학의 갈래이론』, 집문당, 1992

9) 소재영, 「한문소설의 발달과정」, 『고소설통론』, 이우출판사, 1983
김현룡, 「국순전과 국선생전 연구」, 『국어국문학』 65·66, 국어국문학회, 1974

10) 김광순, 「고려후기 의인문학의 형성과 문학사적 의의」,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5

11) 박성의, 『한국고대소설사』, 일신사, 1964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82

12) 조수학, 「가전연구」, 『어문학』 29, 한국어문학회, 1972
안병설, 「가전에 대한 의견 산고」, 『명지어문학』 7, 1975

13) 송병렬, 「의인체 산문의 발달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4) 신기형, 「가전체문학논고」, 『국어국문학』 15·16, 국어국문학회, 1956

과정이다.’라고 하며 가전을 설화에서 탈피해 소설로 가는 과도기라고 밝혔다. 또한 가전이라는 말이 물건을 의인화한 假傳的 筆法이므로 문학 장르상 ‘가전체문학’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조선시대는 시가문학에 비해 가전체 문학이 왕성하지 못했음을 언급하면서 가전문학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그 후 1960년대 후반에 김광순이 「한국 의인 문학의 사적 계보와 성격」¹⁵⁾에서 가전을 의인소설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였다.

1970년대에 와서 비로소 가전이 소설과는 완전히 독립되는 장르임을 인식하는 논의가 나타났다. 조동일은 「가전체의 장르 규정」¹⁶⁾에서 가전을 가전체라고 명명하면서 교술 장르의 일종으로 규정하였다. 후에 「가전연구」¹⁷⁾에서 가전이 傳의 일종임을 밝히면서 ‘가전체’라는 명칭을 ‘가전’으로 바꾸기는 했으나 가전의 교술적 성격을 강조함에는 변함이 없었다.¹⁸⁾ 비슷한 시기에 안병설은 「가전에 대한 이견 산·속고」¹⁹⁾에서 이전 가전에 대한 논의에 대한 몇가지 이견을 내세웠다.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 ‘가전체 소설’이라고 언급되었던 명칭이 ‘가전체’라고 이어 사용됐음을 지적하고 그 부당함을 논의하면서 ‘가전’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올바름을 주장하였다. 또한 가전의 발생에 관한 논의에서 <국순전>과 <국선생전>이 중국의 <청화선생전>을 모의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중국의 가전이 동전되었음을 밝혔으며 가전이 설화에서 고전소설로 넘어가는 교량적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장르임을 주장하였다.

15) 김광순, 「한국의인문학의 사적 계보와 그 성격」, 『어문학』 16·17, 한국어문학회, 1967

16) 조동일, 「가전체의 장르규정」, 『한국문학의 갈래이론』, 집문당, 1992

17) 조수학, 「가전연구」, 『어문학』 29, 한국어문학회, 1973

1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1

19) 안병설, 「가전에 대한 이견 산·속고」, 『명지어문학』 7·8,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5·1976

가전이 신흥사대부들의 새로운 문학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창출된 것이 아니라 당시 난잡한 시대에 몰락한 寒窮한 문인들이 직언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隱喩로 시대를 풍자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철적인 古事多用에 의한 구성이므로 창작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가전의 특성인 ‘寓言’을 간과한 견해로 우언을 통해 작가 의식을 은유하여 시대를 반영하고 자기변명을 드러내는 창작의 일환이라 주장하였다. 「고려가전의 형성과 그 성격」²⁰⁾에서는 임춘과 이규보의 가전 작품을 중심으로 가전의 성격과 특징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가전의 한문학상 비중에 대한 부정적인 편향을 비추었다.

1980년대에 김창룡은 「한중 가전문학의 연구」²¹⁾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전을 연원·개념·작품감상·문학사적 의의 등 총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가전문학 이론」²²⁾에서 고려 말부터 구한 말까지의 가전작품과 의인단편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살펴 그 발달 양상을 밝혔다. 안병렬은 「한국 가전연구」²³⁾에서 가전과 가전체 소설을 범위로 그 연원과 성립을 살피고, 각 작품을 분석하여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식을 밝혔다. 또한 가전과 전기·우화·소설을 각각 비교한 후, 가전의 특징을 밝혀 가전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혔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주종연은 「한국 가전체에 대한 일고찰」²⁴⁾에서 가전체가 서사문학 양식에 있어 최초의 독립적 서사장르임을 밝혔다. 아울러 고려 가전체가 지니는 반 역사신화의 다음 단계에 자연스럽게 놓이는 사적 가치와

20) 안병설, 「고려가전의 형성과 그 성격」, 『북악한학』 1, 국민대학교, 1978

21) 김창룡, 『한중 가전문학의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사, 1985

22) 김창룡, 『가전문학의 이론』, 박이정, 2001

23) 안병렬, 『한국 가전연구』, 이우출판사, 1986

24) 주종연, 「한국 가전체에 대한 일고찰」, 『한국 고전문학 장르 연구』, 한신문화사, 1993

특수 서민계층을 다룬 열전 다음에 오는 서사문학의 인물 변천사적 위치, 그리고 경험적 형식인 역사와 허구적 내용인 로맨스의 사이에 놓여있는 문학사적 가치를 정리하였다.

뒤이어 광정식은 「한국 전문학의 이해」²⁵⁾에서 가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방법론을 탐색하였다.

이밖에 가전 작품의 해석·분석연구, 작품간의 비교연구²⁶⁾, 불교가전에 대한 연구, 가전의 형식적·내용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가전문학론에 관한 비판연구, 가전연구 방법론²⁷⁾ 등 다양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상 가전의 장르, 명칭, 개념을 규정하는 연구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가전의 장르와 명칭을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가전이 하나의 독립된 창작 장르로 소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후대로 가면서 문학사적으로 소설문학이 발달되어 소설의 요소가 가전에도 첨가되었기 때문에 가전의 성격이 점점 소설과 흡사하게 변화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작품들은 가전이 아닌 ‘가전체 소설’ 내지는 ‘의인체 소설’이라는 또 다른 장르로 분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고려가전은 가전의 작품량과 창출된 시기가 분명하고, 작가도 5명밖에 되지 않기에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조선시대 가전은 작품이 여러 작가마다 소량으로 散見되어 있고 그 창작 시기도 분명하지 않으며, 많은 문인들의 문집에서 새로운 가전 작품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

25) 광정식, 「한국 전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성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26) 이강옥, 「국순전과 국선생전의 서술방식과 세계관」, 『다곡이수봉선생 회갑기념 고서설연구』, 간행위원회, 1988

27) 광정식, 「가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방법론 탐색」,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6

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조선시대 가전은 그 체계적인 연구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가전의 개념과 성격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조선후기의 가전 작품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약 800년 동안 50여 편의 가전이 창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전의 범위를 고려시대 9편과 조선시대 38편, 구한 말의 5편으로 한정하고, 그 중 조선후기 영·정조대의 가전을 중심으로 그 연구범위를 좁히고자 한다. 이 시기의 가전 작가들 중에는 기존 문장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載道論에서 탈피하여 개성적인 문장을 추구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작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전의 가전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가전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가전의 전개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가전의 개념을 ‘傳’에서부터 찾아본 후, 가전의 특성인 模擬性, 遊戱性, 敎訓性에 관하여 정리해볼 것이다. 그리고 고려 말 임춘의 <국순전>·<공방전>이 창작되었던 시기부터 임진왜란까지의 기간을 고려와 조선전기로 나누어 고려 가전과 조선전기 가전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장에서는 조선후기 영·정조대의 문학적 배경을 살펴본 후, 이 시기 가전의 주요 작가와 작품을 분석하여 그 시기 가전 문학의 특징을 밝혀낼 것이다. 가전 작품의 선정은 가전 창작이 가장 활발했던 영·정조대의 다섯 작품으로 한정할 것이며, 이 시기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으로 형성된 문학적 배경을 조명해 보고, 이전 시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문학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전 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가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조선후기 가전의 문학사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豫備的 考察

1. 假傳의 概念 및 特性

假傳이란 傳의 한 분과의 개념인데, 전이 사람에 대한 傳記이라면, 가전은 사물에 대한 傳記이다. 가전의 題材가 되는 것들은 주로 술·돈·지팡이·종이·붓·벼루·먹·대나무·죽부인 등과 같이 인간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물건이다.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가전의 소재가 확장되어 花卉와 같은 植物을 입전대상으로 삼기도 하였고, 말·호랑이·고양이 등과 같은 動物을 입전대상으로 삼기도 하였으며, 부채·담배와 같은 嗜好物을 입전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또한 性理學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心性을 입전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傳은 일반적으로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傳記로 입전인물의 일대기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假傳은 위와 같은 대상물을 擬人化하여 입전대상물의 유래와 성질, 사용방법 등을 인간의 행적으로 假構하여 그 일대기를 기록하고 寓意的으로 작가의 내적 심정을 드러내고 현실을 諷刺하여 戒世懲人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즉 『史書』 「列傳」의 체제를 모방하여 사물의 전을 지은 것이 곧 假傳인 것이다.

假傳의 어원은 明 徐師曾의 『文體明辯』에서 비롯되었는데, 『문체명변』은 중국 역대 문체론 저서 가운데 권위를 인정받는 저서로, 특히 傳에 대한 상세한 문학적 설명과 예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먼저 서사증의 『문체명변』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서를 살펴보면 전이란 것은 전하는 것이라 말한다. 사적을 기록해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한나라 사마천이 사기를 지으면서부터 열전이 창출되어 한사람의 시종을 기록하였는데, 후세의 사가들도 끝내 바꾸지 못하였다. 여기에다 산림이나 이항에서 혹 덕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음이 있거나, 혹 세인이면서 법으로 삼을 만함이 있으면 모두 그를 위해 전을 지었다. 그 사실을 전함으로써 그 뜻을 우의하였는데, 문장을 쓰는 사람이 사이에다 골계의 방법을 섞었지만, 모두 전체이다. 그러므로 지금 변별하여 나누면 그 품이 네 가지가 된다. 첫째가 사전이요(정변 두체가 있다.) 둘째가 가전이요, 셋째가 탁전이요, 넷째가 가전이다. 작자로 하여금 고찰하게 한다.²⁸⁾

라고 하며 傳體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 성격과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사마천이 일세를 풍미했거나 역사적인 功績이 있었던 사람들의 일생을 기록하면서부터 史傳이 시작된 것이다. 즉 史的으로 기록할 만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한 것이 史傳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름을 올릴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隱德이 있거나 남의 모범이 될 만한 행적이 있는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것이 家傳인 것이다. 다음으로 ‘그 사실을 전함으로써 그 뜻을 寓意하였다’는 부분은 托傳을 가리키는 부분이다. 전을 지을 때 우의, 즉 어떤 뜻을 다른 사물에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托傳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장을 쓰는 사람이 사이에다 滑稽의 방법을 섞었다’는 부분이 假傳을 가리키는 것이다. 작가가 골계의 방법, 즉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익살스런 말이나 행동을 문장에 섞어 쓰는 방법을 사용하여

28) 徐師曾, 『文體明辯』, 香港太平書局, 1977, 153면, “按字書云 傳者傳也 紀載事迹 以傳於後世也 自漢司馬遷作史記 創爲列傳 以紀一人之始終 而後世史家卒莫能易 嗣是山林里巷 或有隱德而弗彰 或有細人而可法 則皆爲之作傳 以傳其事 寓其意 而馳騁文墨者 間以滑稽之術雜焉 皆傳體也 故今辨而列之 其品有四 一曰史傳(有政變二體) 二曰家傳 三曰托傳 四曰假傳 使作者考焉.”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假傳이다. ‘이 모두가 傳의 體이다’라고 언급했듯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부터 시작한 史傳이 家傳·托傳·假傳으로 변용되었고, 그 중에서 전의 형식에 골계를 섞어 지은 작품에 ‘假’를 붙여 ‘假傳’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假傳은 史傳의 형식을 빌리고, 또 사람이 아닌 사물을 빌려서 의인화했기 때문에 ‘빌리다’는 의미의 ‘假’를 붙인 것이다. 그리고 의인화된 사물의 행적을 서술하는 방법으로 滑稽를 사용하였다.

假傳은 韓愈가 漢나라 역사가인 司馬遷의 『史記』의 글을 모의하여 <毛穎傳>을 창작한데서부터 출발한다. 唐宋八大文章家의 하나인 韓愈는 柳宗元과 함께 古文復古運動을 성공시킨 인물이다. 韓愈 이전에도 변려문의 폐단을 지적하고 고문복고운동을 시도한 문사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성공시키지는 못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그들에게는 세상을 풍미할 만한 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韓愈가 <모영전>을 짓게 된 동기는 자신의 문장력을 발휘하여 세상 사람들을 아연 실소케 하고, 문장의 부흥을 일으켜 세상 문장가로 하여금 고문의 우수성을 알고 따르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었다.²⁹⁾

가전의 개념과 성격을 정리해보면, 假傳은 傳의 골격에 사물을 빌려 擬人化시킨 후 滑稽를 섞어서 그 일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摸擬·遊戯·敎訓의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할 수 있겠다.

假傳은 전의 하위 장르에 속하므로 전의 일반적 형식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허구적이고 골계적으로 변용된 것이다. 장르적 형식을 고수하기 위하여 사물을 사람으로 의인화하고, 서두 인정기술 부분에서는 설화나 고사를 인용하여 先系나 家系를 假構하고, 본문 행적기술 부분에서는 고사나 일화 등의 단편적 이야기를 사람의 행적처럼 사건화하고 편철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결말 평결부 부분에서는 史官의 입장에서 ‘太史公 曰’을 전제하고는 보편적인

29) 조수학, 『한국의 탁전과 가전』, 영남대학교 출판사, 1987, 146면 참조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史官의 견해를 논평하고 있다. 따라서 서두 인정기술 부분은 序頭-先系로 구성되고, 본문 행적기술 부분은 事蹟-終末-後系로 구성되며, 결말 평결부 부분은 評決로 구성된다.

이렇게 史傳보다는 가벼운 형태로 전을 흉내내는 것이나 개별적인 이야기를 우스꽝스럽게 엮어 웃음을 자아내는 것, 그리고 고사나 일화를 모아 하나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엮어 나가는 것 등은 가전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가전의 摸擬性, 遊戲性, 敎訓性 그리고 문장수련의 방편으로서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假傳은 형식면에서는 전의 체제를 철저히 모방하고, 내용면에서는 고사나 일화 등을 잡다하게 인용·모방하고 있다. 陳寅恪은 그의 <讀鶯鶯傳>에서,

모영전은 한유가 사기를 모의한 문으로 대개 고문으로 시험삼아 소설을 지은 것이니 능히 문장을 이룬 것은 아니다.³⁰⁾

라고 하며, 한유의 <모영전>이 『사기』의 문장을 模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柳宗元은 <讀韓愈所作毛穎傳>에서 남의 글을 ‘훔쳐서 모방하고 색칠하여 살을 붙였다.(模擬竄竊 取青媿白 肥皮厚肉)’³¹⁾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가전이 다른 사람이 쓴 글의 내용을 모방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가전의 模擬성을 찾아볼 수 있다. 林椿의 <麴醇傳>에서 ‘모는 이내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를 이루게 하는 사람은 벗이다.(牟乃喜曰 成我者朋友也)’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史記』 「管晏列傳」에서 관중이 그의 친구 포숙을 평하여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나 나를 알아 주는 사람은 포숙이다.(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라는

30) 陳寅恪, 『원백시전증고』 「독앵앵전제후」 <讀鶯鶯傳>, 대만 세계서국, 1963, "毛穎傳者 昌黎模擬史記之文 蓋以古文試作小說 未能成者也."

31) 조수학, 『한국의 탁전과 가전』, 영남대학교출판사, 1987, 153면

문장에서 그 형식을 모의한 것이다. 즉 가전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기존의 문장을 빌려다가 모방하고 인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가전의 模擬性인 것이다.

假傳의 골계성에 대해서는 한유가 <모영전>을 지었을 당시부터 여러 문사들에 의하여 언급되었다. 서사증의 『문체명변』 중 假傳에 관한 부분인 ‘문장을 쓰는 자가 사이에다 골계를 섞는다.’는 문장과 吳訥의 『文章辨體』 傳條에서 ‘迂齋는 문장으로써 골계를 하였으니 또한 변체의 변용이다.³²⁾’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전의 문장은 골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종원의 <讀韓愈所作毛穎傳>에서,

내가 夷 땅에 거하면서부터 중주인과 더불어 글을 주고받지 못하였다. 남쪽으로 부터 온 사람이 마침 한유가 모영전을 지었음을 말하면서 능히 그 말을 잊지 못하면서 혼자 크게 웃어 기이하게 여겼다 … 크게 웃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도 웃을 것이다.³³⁾

라는 기록을 통해 당시 가전이 세인들에게나 유종원에게 웃음을 주었던 문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곧 가전의 골계적 특성이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가전의 遊戲性이다.

이렇게 가전은 입전대상물과 연관 있는 고사나 일화를 모의하고 골계를 섞어 주인공의 성격이나 행적을 엮어매어 꾸러나가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編綴이라고 한다. 李德懋는 <管子虛傳>에서,

32) 吳訥, 『文章辨體』 「傳條」, “迂齋謂 以文滑稽 而又變體之變者乎.”

33) 柳宗元, <讀韓愈所作毛穎傳>, “自吾居夷 不與中州人通書 有來南者 時言韓愈爲毛穎傳 不能舉其辭 而獨大笑以爲怪 … 其大笑固宜 且世人笑之也.”

일찍이 혜강 등 칠현, 이백 등 육일을 주인으로 삼아 대개 그 고아함을 취한 것이다. 소자의 척속의 비유, 원운의 갑작스런 방문, 왕자유의 하루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는 말은 모두 알려진 인사들의 竹과에 관한 일화이다.³⁴⁾

라고 기술하였는데, 첫 문장은 중국晋나라 초기에 老莊思想을 숭상하며 竹林에서 노닐던 頑籍·稽康·山濤·向秀·劉伶·王戎·阮咸의 竹林七賢과 竹溪에 은일하던 李白·孔巢父·韓準·裴政·張叔明·陶沔의 竹溪六逸을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소자의 척속의 비유’란 것은 蘇東坡 시 가운데 ‘어찌 음식에 고기는 없을 수 있으면서, 거하는데 대나무가 없을 수 없는가. 고기는 없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여위게 하고 대나무는 없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속되게 하니 사람의 여위는 오히려 살찌울 수 있으나 사람의 속됨은 고칠 수가 없도다.’³⁵⁾라고 하는 詩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원운의 갑작스런 방문’은 袁粲이 丹陽尹 시절 어느 백성 집에 느닷없이 찾아가 대나무를 玩賞하고 시를 읊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왕자유의 말 또한 자유가 대나무를 사랑하는 癖이 있어 일찍이 ‘어찌 하루라도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겠는가.(何可一日無此君)’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모두 竹과 관련된 고사나 일화를 인용·편철하여 주인공의 德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편철은 소설적 허구성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주인공이 되는 사물과 관계되는 고사나 일화 또는 백과사전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능숙한 필법으로 교묘하게 엮어나가는 방법이므로 재구성하는 의미에서의 虛構性이 인

34) 李德懋, 『靑莊館全書』 券4(한국문집총간 257) 「嬰處文稿」 2 <管子虛傳>, “嘗爲稽康等七賢 李白等六逸主人 蓋取諸雅 蘇子瘠俗之喻 袁尹率爾之訪 王子猷之不可一日無此君之語 皆粲人牙頰也.”

35) 蘇東坡, <潛僧綠筠軒>, “寧可食無肉 不可居無竹 無肉令人瘠 無竹令人俗 人瘠尚可肥 人俗不可醫”

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편철의 서술 방식으로 인하여 가전의 모의와 유희의 성격이 부각되어 진 것이다.

이렇게 假傳은 입전 대상과 관련된 일화나 고사를 인용·모의·편철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한다. 작가는 가전의 서두에서 의인화한 대상의 유래와 가계를 기록하고 본문에서 대상의 행적을 서술하며 결론에서 대상의 행적에 대한 공과를 재단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가는 현실을 풍자하고 계세징인하여 독자들에게 풍자하는데, 이것이 곧 가전의 敎訓性이다. 임춘은 <국순전>의 사평에서 ‘능히 옳은 일을 제시하고 잘못된 일을 고치게 하지 못하였고 왕실을 어지럽혀 넘어뜨린 채 일으키지 못하였다. 마침내 천하의 웃음을 샀으니, 거원의 말이 믿을 만 하구나!’라고 기록하였다. 순[술]을 좋아하여 곁에 둔 왕이 결국 타락을 일삼아 패망함을 풍자하고, 향락에 빠진 왕과 이를 따르는 간신들을 풍자한 것이다.

이러한 假傳의 특성으로 가전 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박학다식하고 다양한 故事와 일화를 알맞게 편철할 수 있는 문장능력과 經世의 논리를 펴가는 문장능력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유와 같은 大家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던 것이고 가전의 창작이 典故의 능숙한 구사를 위한 문장수련의 방편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 창작은 주로 문장수련에 힘쓰는 작가의 젊은 시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 假傳의 展開 樣相

假傳은 한나라 역사가인 司馬遷의 『史記』의 글을 한유가 모의한 것으로, 사마천의 歷史傳記, 곧 『史記』 列傳의 형태적 틀을 그대로 조술한테서 출발한 것이다. 즉 산문의 중요한 한 장르였던 ‘傳’ 형태의 분파인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나름의 독자적인 새로운 경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테면 앞 시대의 인간 주인공을 비인간 주인공으로, 사실성 위주를 허구성 위주로 바꾸어 놓음과 같은 시도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전대의 역사적 서술이 문학적 서술로의 변환을 이룩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생성되어진 假傳은 우리나라 고려말기 12세기 말에 林椿의 <麴醇傳>·<孔方傳>을 통해 그 첫 東傳의 자취를 나타내었고, 이래 이 문예 양식은 최근의 20세기 후반까지 전통적인 양식을 고수하면서도 꾸준히 발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12세기 말 임춘의 가전을 가전 발생시점으로 보고, 조선전기까지 가전의 수용 양상을 고려가전과 조선전기 가전으로 나누어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후기 12세기 말부터 조선건국 이전까지 창작되어진 작품을 高麗 假傳으로, 조선건국부터 임진왜란까지 창작되어진 작품을 朝鮮前期 假傳으로 나누었다.

高麗 假傳의 가장 큰 특징은 林椿·李奎報 등의 일반 문인들 이외에 慧諶과 같은 佛僧에 의해서도 가전이 창작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일반 문인들의 가전은 한유의 <모영전>과 같은 전통적 가전양식에 최대한 충실한 작품으로 작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法古的 滑稽美를 지향하며 현실의 보편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林椿의 <麴醇傳>·<孔方傳>은 각각 술과 돈을 입전한 작품으로 입전대상을 빌어 작가 자신의 불우함과 울분을 간

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입전대상의 功過에 따라 찬양, 혹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李奎報의 <麴先生傳>과 <淸江使者玄夫傳>은 각각 술과 거북이를 입전한 작품이다. <국선생전>은 임춘의 <국순전>에 대한 의식적인 반발로 임춘을 능가해 보려고 창작한 것으로, 임춘의 <국순전>이 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국선생전>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술을 바라보고 술이 주는 이로움을 말하고 있다. <청강사자현부전>은 우리나라 첫 動物假傳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서술 방식이 거북이에 대한 典據와 古事를 編綴하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후시대 가전들의 戲筆的 성향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이규보의 가전 작품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평탄한 삶에서 오는 여유와 그의 관심이 자기수양에 바탕한 처세훈에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 시기에는 일반 문인 이외에 불승에 의한 가전도 창작되었는데, 전체 가전 작품에서 유일하다 하겠다. 慧諶은 대나무를 입전하여 <竹尊者傳>과 얼음을 입전하여 <氷道者傳>을 창작하였다.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은 가전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본문 행적기술부분이 서술형식이 아닌 문답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가전이 儒家的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이 두 작품은 佛家的 사상을 바탕으로 德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보인다. 그는 선승의 면모답게 작품의 주인공을 승려로 하였으며 또한 선문답 및 오·칠언 偈頌의 형태를 활용하여 참된 불도자로서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고려 가전은 佛敎假傳을 제외하고는 가장 기본적인 유가적인 가전 형태를 고수하고 있으며, 입전대상물은 술·돈·종이·대나무 등과 같이 일반생활에서 흔히 사용되어지는 사물과 거북이 등으로 주변 사물과 생물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었다.

朝鮮前期 假傳은 조선건국부터 16세기말 선조·임진왜란의 때까지로 朝鮮前期의 가전이라 할 수도 있는데, 긴 시간에 비해 작품의 수는 많지 않다. 이 시기 가전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의 心性을 입전한 첫 心性 假傳의 등장과 男女의 性器를 입전한 戲筆的 假傳의 등장, 그리고 입전 대상물이 확장된 점이라 하겠다.

첫째 인간의 심성을 입전대상으로 한 첫 심성가전인 金宇顒의 <天君傳>이 창작되었다. <천군전>은 性理學 敎育의 일환으로 지어진 작품이며 작가는 성리학의 대가인 南冥 曹植의 제자였다. 남명은 일찍이 神明舍銘과 并圖를 그려서 사람의 심성작용을 시각적으로 풀이하었는데, 이것을 김우옹에게 ‘傳’으로 지으라고 명하여 창작된 것이 <천군전>이다.³⁶⁾ <천군전>은 군왕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처신으로 敬과 義를 내세워 德治之治를 勸戒하고 있다.³⁷⁾

둘째 男女의 性器를 입전하여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함으로써 가전의 戲筆的 特性을 부각시키고 있다. 宋世琳의 <朱將軍傳>은 男性器를 입전하여 성행위의 표현적 묘미를 살린 것으로, 『禦眠楯』과 같은 음담서에 실려있는 戲謔의 산물이라 하겠다. 成汝學의 <灌夫人傳>은 女性器를 입전한 것으로 <주장군전>에서는 주장군 猛이 나라의 대역사에 공로를 세우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충신열사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작품에서는 같은 이름의 장군 朱猛이 왕과 대치하는 입장에서 격전을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叛臣賊者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가전의 戲筆的 特性을 잘 반영한 문장이라 하겠다.

셋째 입전대상이 보다 다양해졌다. 군자의 節操·節概를 형상화하기 위한

36) 金宇顒, 『東岡先生文集』 卷之十六 張十五, “南冥先生 作神明舍圖 命先生作傳 盖先生年少時也.”

37) 金銀洙, 「천군소설의 이기철학」, 『광주개방대학논문집』 2, 1985, 112면~113면 참조

것으로 기존의 竹 이외에 松을 입전한 <大夫松傳>이 창작되었고, 동절기의 온신구인 탕파를 입전한 <湯婆傳> 및 절구공이를 입전한 <杵君傳> 등이 창작되어 졌다.

趙纘韓의 <대부송전>은 진시황과 관련된 일화를 중심으로 소나무의 節義에 대한 상황적 의미를 작자의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해석으로 서술한 작품이며, <탕파전>은 旣色의 者에 대한 경계 및 浮華한 粉黛 여인에 대한 戒色 등의 각성을 촉구하며 세상의 진실성 없는 영인·아유배들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尹光啓의 <저군전>은 임진란 직후에 야기된 양식부족으로 절구의 사용이 거의 무의미해진 데에 따른 곤궁상을 작가가 여유롭게 관조한 작품이다. 또한 계를 입전하여 다른 가전에서는 보기 드문 悲壯의 情調를 드러낸 <郭索傳>이 창작되었다. <곽삭전>은 權鞞의 자서전적 가전이면서 당시의 병폐에 대한 내포적 풍자의 의미마저 은근히 깔려있는 작품이다. 高用厚의 <탕파傳>은 조찬한의 풍자·교훈적 주제에 비해 단순히 탕파가 인간사회에 끼치는 공덕을 높이 선양하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상 고려 가전과 조선전기 가전의 전개 양상을 정리해 보았다. 고려 가전은 한유의 <모영전>에 가장 부합하는 전통적인 유가적 관념의 가전이다. 술·돈·종이·대나무 등의 주변사물을 의인화하여 사회를 풍자하고 계세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작되었다. 그리고 조선전기 가전은 고려 가전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발전되었다. 입전대상이 心性, 남녀의 성기, 松, 탕파 등으로 더욱 확대되었고, 인간의 내면적 원리에 관심을 가지는 心性 假傳과 음담패설에 가까운 戲筆的 假傳이 처음 등장하였다. 전대의 가전에 비해 내용적인 면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

Ⅲ. 朝鮮後期 假傳의 文學的 特性

1. 英·正祖代의 文學的 背景

朝鮮後期는 壬丙兩亂으로 드러난 왕조의 내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는 시기였다. 영조 초기에 이르러 비로소 경제적인 안정은 이루어졌으나 붕당간의 대립격화로 당쟁은 심화되었다. 사림간의 당쟁격화는 소수의 경화세족과 벌열에 의한 사회적 독점현상을 발생시키며, 대다수의 사대부 집단을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대부 집단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질 집단 내에서의 긴밀한 交流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시켜, 동질적 당파나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사대부들을 문학적으로 교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신분계층의 변화 속에서 서울은 정치적 중심지이자 유통경제와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발달되었다. 자연히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京鄕의 사회적 分岐와 京華士族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당시 서울과 그 주변 도시의 經濟的 繁華와 동질적 사대부 집단의 文化的 活力은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발한 것이었다. 경화세족은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청나라로부터 대량의 서적을 수입하여 장서가가 되고 서화골동에 대한 취미와 博學의 추구로 향촌의 양반과는 차별화된 문화를 형성하여 학문과 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였다.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경화세족 문인들의 집단을 살펴보면, 18세기 전기에 서울 北岳을 중심으로 老論 계열의 문인들이 주로 활약하였던 白岳詩壇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金昌翁·李秉淵 등이며, 洪世泰와 같은 閭巷人도 이

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安山을 중심으로 南人·小北계열 문인들이 주축이 된 집단도 등장하였는데, 崔成大·李瀾·李用休 등이 대표적 문인이다. 또한 서울의 白塔을 거점으로 서얼계층 지식인들과 노론계열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한 白塔詩派가 있는데, 朴趾源·李德懋·朴齊家 등이 주요 문인이다.³⁸⁾

이와 같이 조선후기 문단은 조선 초기 이래로 그 발전 양상의 변화가 다양하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기존의 儒家的·道學的 범주에서 벗어난 새로운 내용과 형식, 사교의 등장은 사회적으로 작가의 신분 및 지위상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지을 수 있겠다.

이러한 문인층의 사회적 지위 변화로 나타난 무인집단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가 지배 권력층으로부터 소외된 문인군의 집단이고, 두 번째가 신분상 양반사대부 이외의 집단에 속한 문인군의 집단이다. 18세기는 17세기 중반 이래 격화된 당쟁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노론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小論이나 南人·小北에 속한 사대부는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며, 경제적으로도 그에 상응하는 처지가 되었다. 노론에 속한 사대부라고 해도 별열과 인척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는 권력과 경제적 이득으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³⁹⁾ 권력과 경제력을 독점한 당파의 인물들이 정치적·경제적 이득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정치적으로 몰락한 당파의 인재들은 학문과 문학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고위 관료로의 진출이 막혀 있던 서얼집단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역량을 학술·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발휘하였다. 이들은 18세기 후반 정조대에 대거 등장하였는데, 李德懋·柳得恭·朴齊家 등이 이에 속한다.

38)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사, 1999, 25면

39) 前掲書, 26면

한편 이렇게 신분적·정치적으로 소외된 문인들 이외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신분적 제한도 없으면서 사상이나 문학적인 면에서 소외된 문인들이 있었다. 英祖代의 東谿 趙龜命, 正祖代의 文無子 李鉦·담정 金鑣 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은 사상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당대의 문인들과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당시 사회로부터 평생 배척되고 소외되었다. 東谿는 당시 보수적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相對主義的 세계관을 주장하며, 절대적인 儒家的 사상에서 다소 벗어나서 儒·佛·道의 사상을 동시에 아우르는 개성적인 사상과 문학을 추구했다. 그리고 文無子는 그의 독특한 문체, 즉 小品文 문체를 고집하여 정치적으로 정조로부터 평생 배척당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그들은 당대 지식 문인층에게 소외당하였고, 이로 인한 마음의 갈등과 울분이 컸다.

이렇게 정치적·신분적 혹은 문학적으로 제약을 받던 문인들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새로운 방법의 문학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는데, 불만 혹은 울분이나 민간의 삶에 대한 친화감, 엄격한 격식으로부터의 탈피 등을 추구하였다. 이것이 영·정조 시기에 사회적 지위변화를 겪은 문인군들에 의한 문학적 특징인 것이다.

영·정조 시기의 문학적 특징을 이루는 또 다른 배경은 개성의 발양을 중시하여 尖新한 풍을 드러내는 명말청초 문학의 수용이다. 명대 말엽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토해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 버리다(信心而出, 信口而談)”는 袁宏道의 문학이나 奇妙한 세계를 보여주는 竟陵派의 詩文은 擬古主義 문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⁴⁰⁾ 조선중기 이후 이들의 문학 서적이 대량 조선으로 수입되고 적극 수용되어지면서 明末清初의 새로운 문학사조의 영향이 더욱 폭넓게 퍼졌다. 특히 소품작가들의 문집 및 소품선, 양명좌파의

40)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사, 1999, 31면

경학해설서, 명물고증서, 서구 과학기술서, 천주교 서적 등은 성리학의 세계에만 沈潛해 있던 조선의 학자와 문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사상과 문학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봉건체제를 균열시킬 소지가 있는 이러한 明清의 서적들에 대해 정조는 1791년 수입 금지령을 내리기에 이른다.⁴¹⁾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서얼계층의 문사들이 중심이 되어 기괴하고 참신한 문학을 추구하는 문풍은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이러한 문풍은 명말청초의 각종 서적들을 수장하고 다독하며 개성적이고 참신한 문풍을 추구했던 李用休와 朴趾源·朴齊家·李德懋 등의 白塔詩派에 의해 강하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문학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이자 특징은 격식과 규범으로부터 탈피한 작가의 個性의 추구이다. 영·정조 시기의 많은 문인들은 고문의 踏襲과 模倣대신 자연과 인간의 經驗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독창적인 창작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문학의 내용면에서는 개인 서정을 읊거나 멋진 경물을 吟詠하는 전통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현실의 다양하고 사실적인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조선의 역사를 吟詠하고 독특한 자연풍토·인정세대·풍속생활을 읊고, 閭巷의 비속한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이 점차 많아졌으며, 또한 작가의 독특하면서도 個性的인 主題意識을 담고 있는 작품이 창작되어졌다.

이렇게 영·정조시기는 사회·정치적인 변화와 명말청초 서적의 수입을 통해 이전까지 지배적이었던 朱子學의 권위가 급격히 쇠퇴하였고, 아울러 활발한 도시 문화가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 집단이 대두하였는데, 이들 집단의 글에는 현실에 억눌려 생긴 과잉된 자의식을 해소

41) 1971년, 1974년 동지사행에 중국서 수입 금지를 지시했다. 한편 『사고전서 총목제요』를 중심으로 건륭제 및 편수관들의 보수적인 시각, 태도가 정조의 이러한 보수적인 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되어 있다.(김성진, 「사고전서가 문체반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부산한문학연구』 9, 1995)

하지 못해서 생기는 번민이 자주 거론되었으며, 그러한 번민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癖을 추구하는 형태로 해소되기에 이른다.

정조의 駙馬였던 洪顯周는 <癖說贈方君孝良> 이란 글에서 벽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벽이란 병이다. 어떤 물건이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좋아함이 지나치면 ‘즐긴다[樂]’고 한다. 즐기는 사람이 있어 이를 즐김이 지나치면 이를 ‘癖’이라고 한다. 董仲舒나 杜預는 학문에 벽이 있던 사람이고, 王勃과 李賀는 시에 벽이 있던 사람이다. 謝靈運은 遊覽에 벽이 있었고, 米芾은 돌에 벽이 있었으며, 王徽之는 대나무에 벽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밖에도 온갖 기예에도 벽이 있다. 宮室이나 珍寶, 그릇 따위에도 벽이 있다. 심지어는 부스럼 딱지를 맛보거나 냄새나는 것을 쫓아다니는 종류의 벽도 있는데, 이는 벽이 괴상한데로까지 들어간 사람들이다.⁴²⁾

요컨대 癖이란 어떤 사물을 좋아하여 즐거움이 지나친 것으로 미친 듯이 몰두하여 다른 것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몰입의 상태를 말한다. 18세기 이전에는 癖이라는 것은 군자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대상이었다. 尹行儼은 <癖說>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품수 받은 바가 제각기 있어서 그 성품 또한 하나도 같지가 않다. 또한 저마다 좋아하는 癖이 있게 마련이다. 詩酒癖이 있고 禽獸癖도 있으며, 물건을 좋아하는 玩好癖도 있다. 벽은 진실로 한결 같지 않지만, 뜻을 잃게 하고 몸을 해치는 것이 됨은 한 가지이니, 모두 경계할 만 한 것이다⁴³⁾

42) 洪顯周, 『海居詩文集』 <癖說贈方君孝良>, “癖者病也 凡物有好之者 好之甚則曰樂 有樂之者 樂之甚則曰癖 仲舒杜預癖於學者也 王勃李賀癖於詩者也 靈運癖於遊者也 米芾癖於石者也 王徽之癖於竹者也 外是以往有百工技藝之癖焉 宮室珍寶器用之癖焉 甚至有嗜痂逐臭之類 又癖之入于怪者也.”

라고 하여 癖이 바른 뜻을 잃게 하고 마침내 몸을 해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하는 儒家의 전통적인 ‘玩物喪志’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癖에 대한 인식은 18세기 중기이후 변화하였다.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인지식인층 사이에서 벽은 중요한 관심분야로 자리 잡게 되고 문인들 사이에서 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유행되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명말 청초 중국의 지식인 집단 속에서도 보이는데, 명나라 때 吳從善은 『小窓自紀』에서 “평생을 팔았어도 이 명청함[癡]은 다 못 팔았고, 평생을 고쳤어도 이 고질[癖]은 못 고쳤다. 湯太史는 사람은 벽이 없을 수 없다고 했고, 袁石公도 사람은 치가 없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럴진대 명청함은 팔 필요가 없고, 고질은 고칠 필요가 없다.(生平賣不盡是癡 生平醫不盡是癖 湯太史云 人不可無癖 袁石公云 人不可無癡 則癡正不必賣 癖正不必醫也.)”라 했다. 또한 淸나라 張潮는 『幽夢影』에서 “꽃에 나비가 없을 수 없고, 산에 샘이 없을 수 없다. 돌에는 이끼가 없을 수 없고, 물에는 물풀이 없을 수 없다. 교목에 덩굴이 없을 수 없고, 사람은 벽이 없어서는 안된다.(花不可以無蝶 山不可以無泉 石不可以無苔 水不可以無藻 喬木不可以無藤蘿 人不可以無癖.)”라고 하며 癖이나 癡를 사람에게 필요한 요소로 보았다.

병적인 상태의 집착이나 취향을 높이 평가하는 이러한 인식은 명·청의 패관소품문을 즐겨 읽던 18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유입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다. 楚亭 朴齊家是 <百花譜序>에서,

43) 尹行儼, 『守默堂遺稿』 권5, <癖說>, “人之生也 各稟所賦 其性也 萬不同也 而亦各有癖好焉 有詩酒癖焉 有禽獸癖焉 有玩好癖焉 癖固不一 而其爲喪志害己則同也 皆可戒者.”

사람이 벽이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일 뿐이다. 대저 벽이란 글자는 병이란 글자에서 나온 것이니, 지나친 데서 생긴 병이다. 비록 그러나 홀로 걸어가는 정신을 갖추고 전문의 技藝를 익히는 것은 왕왕 벽이 있는 사람만이 능히 할 수 있다”⁴⁴⁾

고 하여, 벽이 비록 지나친 데서 연유하는 병통이기는 해도 홀로 걸어가는 정신을 갖추고 전문적인 기예를 익히기 위해서는 벽이 필요하다고 호응하였다. 아정은 자신을 책만 보는 바보라 하여 스스로 <看書癡傳>을 지었는데,

목떡산 아래 멍청한 사람이 있는데, 어눌하여 말을 잘하지 못하였고, 성품은 게으르고 졸렬한데다, 時務도 알지 못하고 바둑이나 장기는 더더욱 알지 못하였다. 남들이 욕해도 따지지 않았고, 칭찬해도 뽐내지 않으며, 오로지 책보는 것만 즐거움으로 여겨 춥거나 덥거나, 주리거나 병들거나 전연 알지 못하였다. …… 두보의 오언을시를 더욱 좋아하여, 끄끙 앓는 것처럼 골뜩히 읊조렸다. 그러다 심오한 뜻을 얻으면 너무 기뻐서 일어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소리는 마치 까마귀가 깍깍대는 것 같았다. 그러다 혹 고요히 소리 없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하고, 혹 꿈결에서처럼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이를 가리켜 看書癡, 즉 책만 읽는 멍청이라고 해도 또한 기쁘게 이를 받아들였다. 아무도 그의 전기를 짓는 이가 없으므로 이에 붓을 떨쳐 그 일을 써서 <간서치전>을 지었다. 그 이름과 성은 적지 않는다.⁴⁵⁾

44) 朴齊家, 『楚亭全書』 <百花譜序>, “人無癖焉 棄人也已 夫癖之爲字 從疾從癡 病之偏也 雖然 具獨往之神 習專門之藝者 往往惟癖者能之”

45) 李德懋, 『靑莊館全書』卷4 「嬰處文稿」2 <看書癡傳>, 83면, “木覓山下 有痴人口訥不善言 性懶拙 不識時務 奕棋尤不知也 人辱之不辨 譽之不矜 惟看書爲樂 寒暑飢病 殊不知 …… 尤喜子美五言律 沉吟如痛疴 得其深奧 喜甚 起而周旋 其音如鴉叫 或寂然無響 睜然熟視 或自語如夢寐 人目之爲看書痴 亦喜而受之 無人作其傳 仍奮筆書其事 爲看書痴傳 不記其名姓焉.”

라고 하였다. ‘看書癡’는 책만 읽는 바보는 바로 아정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다. 말도 잘 못하고, 성품은 게으르고, 세상물정도 잘 모른다. 책 보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 그의 이러한 讀書癖을 두고 사람들은 ‘看書癡’라고 놀려대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의 독서벽은 그의 문집에 실려 있는 독서에 대한 많은 글들에서도 알 수 있는데, 『蟬橋堂濃笑』에서 “가난해 반 폐미의 돈조차 저축하지 못하면서 천하에 가난하고 좁고 질병과 困厄에 시달리는 이에게 베풀고 싶어 한다. 노둔해서 한권의 책조차 꿰뚫어보지 못하면서 만고의 經史와 이야기책을 다 보려한다. 오활함이 아니면 바보로구나. 아, 이덕무야! 아, 이덕무야!”⁴⁶⁾라고 하여, 迂와 癡로 스스로를 自任하기도 했다.

당시 癖을 추구했던 문인들은 노론계의 몰락한 문인들과 庶孽 출신의 문인들이 많다. 그들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비대해진 자의식을 괴로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癖을 추구하면서 내적 갈등을 스스로 추스르며 삶의 즐거움을 享有하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영·정조대의 문학적 배경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문인군들의 정치적·신분적·경제적 기반의 변화로 인하여 문인들의 疏外感和 喪失感이 커졌다. 둘째 명·청 문물의 수용으로 個性的이고 斬新한 문학이 창출되기 시작하였고 규범으로부터 탈피하여 작가의 개성을 추구하는 문학이 대두되었다. 셋째 자의식에 대한 번민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癖을 추구하며 즐거움을 향유하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서울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46) 李德懋, 『蟬橋堂濃笑』(정민, 『한서 이불과 논어 병풍』, 열림원, 2000, 57면 참조), “貧不貯半緡錢 欲施天下窮寒疾厄 鹵不透一部書 欲覽萬古經史叢裨 匪迂卽痴 嗟李生 嗟李生”

2. 作品論

1) 趙龜命의 〈烏圓子傳〉

조구명은 1693년(숙종19)에 태어나서 1737년(영조13)까지 살았다. 자는 錫汝, 寶汝이며 호는 東谿, 乾川이다. 본관은 풍양이며 父 僉正公 趙泰壽와 母 靑松 沈氏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7세에 이미 文理를 통하였고, 13세에 과거장에 나아가 대책문을 지어 찬사를 받았다. 19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29세에 永禧殿參奉이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가 42세에 童蒙敎官이 된 후 대신들의 추천으로 司蓄署別提로 승진하였다. 泰仁·開寧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으며, 전후로 세 번 翊衛司에 들어가 侍直翊衛가 되었다.⁴⁷⁾

동계는 처음에는 부친의 뜻을 받들어 과거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문의 번창에 힘입어 벼슬길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제도의 비합리성에 대한 불만과 특유의 放達한 성격으로 大科를 보지 않았다.

영조 2년에 시행된 증광 문과 회시에 응시하였는데 주고관인 정형익이 공의 대책문을 보고는 바로 내쳐 버렸다. 참고인 윤심형이 따지면서 “이는 반드시 ‘문장지사’이니 의당 시험의 일등작이오”라고 하였지만 정형익은 들어주지 않았다. 공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과거를 보지 아니하였다.⁴⁸⁾

47) 강민구, 「동계 조구명이 문학론과 산문세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4면

48) 黃景源, 『江漢集』 卷17(한국문집총간 224) 「墓誌銘」 <東谿趙公墓誌銘并序>, “英廟二年 赴增廣文科會試 主考官鄭公亨益 見公對策 文黜之 參考官尹公心衡 固爭曰 此必文章之士也 宜置之會試第一 鄭公不聽 公由是不赴貢舉”

이 일화를 보면 동계가 낙선된 이유는 그의 문장이 기존의 사회질서가 요구하는 유가적 문장에서 벗어난 대책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당시는 노론과 소론, 남인의 치열한 당쟁이 극에 달했고, 戊申亂과 같은 정치적 반란과 劍契 사건과 같은 하층민의 반발도 두드러진 시기였다. 그가 벼슬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정치·사회적인 혼란상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조선 후기는 중인층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상승하고 양반층이 분화하는 등 신분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동계는 자타가 공인한 산문가였는데,

華谷居士[趙爾昌]은 시인이다. 그런데 자신의 원고 서문을 내게 부탁하였다. 나는 평소에 시에 능하지 못하여 거사의 원고를 보니 망연히 현혹되어 위태롭기마치 원거새가 종과 북으로 울리는 것 같다...일찍이 “시와 문은 두 가지이지만 이치는 한가지이다”라고 들었으니, 나는 우선 나의 문장을 논하는 이론으로 시를 논하는데 옳기려 하니 가능하겠는가?⁴⁹⁾

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동계는 스스로도 시인보다는 산문가임을 자처하고 있다. 또한 『영조대왕실록』에서

조구명은 문학적 재능을 지녔다.

조구명은 평소에 문으로 유명하였다.⁵⁰⁾

49) 趙龜命, 『東谿集』 卷1(한국문집총간 215) 「序」 <華谷集序>, “華谷居士詩人也 乃請余序其稿 余素不能詩 於窺居士之稿也 茫然眩惑 殆如鷄鶩之響鐘鼓……抑嘗聞詩文二矣而理則一 吾姑以吾之論文 而移之論詩 可乎.”

50) 『英祖大王實錄』 卷40, “ …趙龜命有文學… , … 龜命素有文名… ”

라는 문장의 언급과 영조가 직접 『동계집』의 서문을 지어 주었다는 사실⁵¹⁾은 동계가 문학으로 당대에 명성이 높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당시 사람들은 동계를 사상·문학적인 면에서 이단아라고 평가하고 배척하였다. 동계가 黃景源, 南有容에게 자신의 문집의 서문을 부탁하였을 때, 황경원은

진실로 집사께서 삼교에 통하였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불교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숭함을 숨기시니 그것은 불교에 대해 배척하여 스스로 命名하지 않으려 함입니다. …… 불교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선양하고 조장하며 드러내어 알리고자 하니 어찌된 노릇입니까?⁵²⁾

라고 하여 동계가 儒·佛·道의 어설픈 절충자임을 비난하였다. 아울러 겉으로는 儒者인 척하고 숨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佛者라고 비난하며 그의 사상적 이단성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남유용도,

일찍이 <靜謐>의 문자를 보니…다만 허다한 말들이 한결같이 도의 큰 근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곳도 족하의 妙境에 그칠 뿐이니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즐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후생이 그것을 좋아하여 남을 기쁘게하는 말을 익혀 일삼는다면 도리어 대도를 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를 아는 선비가 이로써 그대의 얕고 깊음을 엿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걱정입니다. 족하의 문집 속에서 반드시 이 한편의 문자를 제거해야만 나의 서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⁵³⁾

51) 前揭書, 卷120, “上 親制趙龜命文集序…爲人清淨寡慾 而以文章 名於世…上 聞其有文集 而主張蕩平之論 與李天輔元景夏輩相親 故遂制其序文 以賜之…”

52) 黃景源, 『江漢集』 卷5 「書」 <答趙翊衛第二書>, “誠以執事通三教 而實入於釋氏 然深諱其宗 不肯二釋氏之教自名故也……非徒不能距之也 而又贊之進之張大之 何邪”

53) 南有容, 『雷淵集』 卷15(한국문집총간 217) 「書」 <答趙錫汝>, “嘗見靜謐文字…但

라고 하며 그의 문장이 大道, 즉 성리학적 세계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로써 보면 당시 여러 문인들은 동계의 開放的이고 獨創的인 思想과 個性的인 文章에 강한 반감을 품었음을 알 수 있다.

동계는 儒·佛·道를 섭렵한 사상을 바탕으로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진솔한 작자의 識見을 중시하는 ‘意’ 위주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문학관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故事成語와 도가·불교의 用語 그리고 小品體의 용어까지 사용하였으며 심지어는 稗說의 文體를 썼다는 평을 받은 작품⁵⁴⁾도 있다. 동계는

골계의 뽀는 제가 진실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佛書를 좋아하여 관세음보살이 32응신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세상을 건진 것을 기억하는데, 백정과 장사꾼의 모습을 나타내고 창녀의 모습을 나타내며 鬼刹의 모습, 짐승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니, 그 신통함은 견줄 것이 없고 妙活은 절로 존재하여 그 법륜을 굴리는데 이릅니다. 저 또한 저의 自得한 意를 드러낼 뿐입니다. 다만 그 자득한 것이 알아서 제 걱정이 됩니다. 滑稽하여 드러낼 수 있으면 滑稽身을 나타낼 것입니다.⁵⁵⁾

라고 스스로 골계적 내용의 글을 쓰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도 自得한 意를 드러내고자하는 한 방편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성격의 문학관으로 인해 동

恨許多言語 一不及道之大原 其佳處 亦止於足下之妙境 自言自娛則可耳 後生好之習 爲高妙悅人之語 則母乃反害於大道乎 知道之士 母乃以是而窺足下之淺深乎 僕爲是懼焉 足下集中 必去此一編文字 僕之序語 乃可得也 如何如何。”

54) 趙龜命, 『東谿集』 卷6 「題跋」 <題際卿所臧東坡詩卷>

55) 前揭書, 卷10 「書」 <又答林彦春書>, “滑稽之累 僕誠有之 嘗喜佛書 記觀世音現三十二應身以說法度世 現屠販身 現娼女身 至現鬼刹身禽獸身 其神通無方 妙活自在 惟歸於轉其法輪 吾亦惟發吾自得之意而已 顧其自得者淺 爲吾憂耳 滑稽而可發 則斯現滑稽身矣.”

계는 당대에 이단이라는 비난과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다.

동계의 이러한 사상과 문장의 성격은 그의 가전에서 드러나는데, <烏圓子傳>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원자전>은 그의 문집인 『東谿集』에 실려 있다. 본전 제목 바로 아래 창작연대로 壬子年의 간지가 주기되어 있는데, 즉 1732년 영조 8년에 해당하며 그의 나이 29세이다. <오원자전>은 고양이를 입전한 작품으로 梗概는 다음과 같다.

- ① 烏圓子の 성은 苗氏이다.
- ② 사적으로 그 이름을 잃어 버려 그 출원한 바를 알지 못한다. 혹자는 山君의 후예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堯시대의 三苗氏의 유족이라고도 말한다.
- ③ 관상 보는 자가 오원자를 보고 호랑이 두상으로 班定遠⁵⁶⁾를 닮았으니, 마땅히 食肉侯에 봉해질 것이라 말하였다.
- ④ 어려서 도적떼들을 위해 무덤을 파헤치고, 마을을 약탈하였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성품이 온순하며 남을 잘 따라다녔으므로 사람들도 또한 그를 사랑하며 어루만져 주었다.
- ⑤ 子氏[취]의 혈족이 난을 일으켜 담장과 벽에 구멍을 파고, 인가의 곳곳에 침입하였다. 이에 천하가 소란스러워져 황제께서 진노하여 機捕官을 두어 잡도록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⑥ 황제는 오원자가 수호의 재주가 있음을 듣고 불러들였다. 오원자는 ‘평소

56) 班超를 지칭한다. 반표의 둘째 아들로 후한 초기의 무장으로 서역 토벌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역도호가 되었고, 정원후에 봉해졌으므로 세상에서 반정후, 또는 반정원이라 일컬었다.

육식을 좋아하였기에 이와 같은 임금의 命이 있게 되었다’고 하며 기꺼이 명을 받들었다. 자씨를 멸하고는 ‘옛적에 岳鵬舉⁵⁷⁾는 음주를 좋아했으나 모든 군사들과 약속한대로 黃龍의 요새에 이르러서야 통음하였는데⁵⁸⁾, 나 역시 자씨들을 멸하고 그 피를 맑은 후에서야 마음 놓고 육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 ⑦ 이에 황제는 명을 내렸다. ‘자씨의 혈족들이 종횡·번식하여 곳곳에서 날뛰며 절도질을 해대니 세상이 시끄럽도다. 또한 지아비는 경작을 해도 먹을 것을 못 얻고, 지어미는 베를 짜도 치마를 얻지 못하였더니 마침내 이 ㅊ가 나타나니 저들이 형체를 감추었다. 이로써 짐은 근심이 사라졌고 백성들은 평안해졌다’라고 하며 오원자를 칭송하였다.
- ⑧ 황제는 ‘江漢은 武神을 찬미했으니⁵⁹⁾ 짐이 몹시 흠모한다.’하며 오원자에게 벼슬과 작위를 내리고 포상하였다. ‘예리함을 쌓고 위엄 떨치는 일을 높이 여기어 그대 조상의 완고하면서 탐욕스러움 같이는 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셨다.
- ⑨ 같은 시기에 韓廬⁶⁰⁾라는 자 역시 군사의 공로로 이름을 떨쳐 오원자와 동등한 지위를 받았는데, 오원자가 그와 공을 다투다 그릇된 언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원자에 대한 황제의 예우가 특별하여 전각에서조차

57) 남송시대의 岳飛이며 字가 鵬舉이다. 금나라 군대를 격파한 공로로 태위에 이르렀으나, 당시 금국에 대한 척화론 과정에서 강경 배척론을 펴다가 옥중 살해를 당한다.

58) 이 대목은 『宋史』 권365 列傳 124 「岳飛列傳」 중에 ‘金將軍韓常欲以五萬衆內附飛大喜 語其下曰 直抵董龍府 與諸君痛飲爾.’의 취용으로 보임.

59) 『詩經』 「大雅」의 「江漢」 편을 말하며, 武臣 찬미는 1, 2장에서 武夫이 隊伍와 위풍을 칭송한 것에 기인한다. “江漢浮浮 武夫滔滔……江漢湯湯 武夫洗洗……”

60) 전국시대 漢나라 産의 名犬을 말한다.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지 않아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 ⑩ 마침내 죽음에 臘月의 合祀⁶¹⁾에 부치어졌다.
- ⑪ 오원자는 기후를 잘 예측하였으며, 그 타고난 성품이 검소하였다. 허물이 있다면 마음에 음험하게 남을 해칠 뜻이 일면 눈매가 사나워진다가, 모습이 궁색하다는 것이었다.
- ⑫ 太史公曰 오원자는 산군[호랑이]과 비슷하나 그보다는 미약한 자이나, 그 수염을 치켜들고 소리치면서 높이 뛰어오르는 모습은 씩씩하다. 이에 세상에서 승헌의 학[문관]⁶²⁾과 개부의 매[무관]⁶³⁾와 더불어 비난하고 원망했으며, 또한 義府⁶⁴⁾에서 은근히 몰아치면서 李苗라고까지 하는 것은 그의 공로를 줄이고 허물만을 드러내는 것이니 바르지 못하다.
- ⑬ 楮先生曰 오원자의 군사공로는 거룩하나 그에게 금수와 같은 음탕한 행실이 있다는 이유로 사신들이 그를 빼고 衛霍傳⁶⁵⁾의 사례만을 기술하였는데 이는 공로를 포상하고 진실을 적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

61) 歲末에 여러 신들에 대해 합동으로 지내는 제사로 여덟 가지 귀신에게 제사하는 八蜡 중에 고양이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밭의 쥐를 잡아먹는 공을 기려서 그렇게 한다고 했다.

62) 乘軒은 대부의 수레로 곧 대부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부의 관복에 학의 문양을 새긴다.

63) 開府란 본래 府署를 개건한다는 뜻이다. 漢시대의 제도는 오직 삼공만이 개부를 얻어 속관을 두었으나, 東漢에 이르러 대장군·표기장군·거기장군 등도 개부를 얻었다. 무관의 관복에는 매의 문양을 수놓는다.

64) 義理를 담은 곳간이란 의미이다. 『左氏』 「僖」 <十二支>, “詩書 義之府也.”

65) 衛霍은 衛靑과 霍去病的 약칭이다. 모두 전한 무제시절 흉노를 쳐서 용맹을 날린 장군이다. 『史記』 권111 「衛將軍驃騎列傳」 제51은 바로 衛·霍에 대한 傳이다.

①, ②는 인정기술 부분으로 序頭-先系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원자의 姓을 苗氏라 한 것은 ‘猫’에서 짐승을 나타내는 ‘犛’을 빼고 의인화한 것이다.

③~⑪은 행적기술 부분으로 事跡-終末로 구성되어 있고, 後系는 생략되어 있다. 사건의 전개와 갈등이 평면적이지 않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④와 ⑥ 그리고 ⑧에서는 오원자의 본성을 엿볼 수 있다. 수호의 재주가 있기는 하나 본래 성품이 陰賊하고 탐욕스러움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功이 있어도 德을 겸비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유가사상과 배척되는 것으로 후에 오원이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 ⑦부분에서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영조 8년은 자연재해가 극심하여 민란이 일어나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전국적으로 식량난과 전염병이 퍼져 사망자가 속출하고, 메뚜기의 폐해가 일어나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⁶⁶⁾ 작가는 이러한 사실적 배경을 苗族에게 가탁시켰고, 묘족을 소탕하는 오원자를 내세워 당시의 자연적 재해를 극복하고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희망한 것이다. 작품에 드러난 이러한 사상은 당시 팽배해 있던 실학정신의 한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⑧에서 江漢이 武臣을 찬미한 것처럼 황제도 武人인 오원자를 칭송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동계의 武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동계는 일생동안 계속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病解 二>에서,

나는 병과 함께 나서 병과 함께 자랐는데, 일찍이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알았던 것 같다. 위로 머리 꼭대기로부터 아래로 사지의 끝까지 병 아닌 곳이 없었다. 무릇 마음의 즐기고 좋아하는 것과 일의 경영하는 바 모두 병 때문에 이룰 수 없었고, 세간의 좋은 날 좋은 달은 신음하는 날 아니면 두려워 움츠리는 때였다.⁶⁷⁾

66) 김창룡, 「<烏圓子傳> 評釋」, 『한성어문학』 10, 한성어문학회, 27면 참조

67) 趙龜命, 『東谿集』 卷10 <病解 二>, “趙子與病俱生 與病俱長 盖嘗默而識之

라고 자신의 삶을 진술한 바 있다. 평소 병약했던 자신에 대한 반동으로 武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⑨부분은 오원자에 대한 황제의 대우를 기록한 부분이다. 오원자의 허물을 덮고 그를 인정해주고 예우해주는 처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작업인 것이다.

⑫, ⑬은 평결부 부분으로 다른 작품과는 달리 두개의 평결부로 이루어져 있다. 남의 공을 무시하고 그 단점만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풍자하고 있다. 특히 ⑫에서는 오원자가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신하들을 경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동계 자신을 투영시킨 것으로 보인다. ‘義府’라 함은 詩經과 書經을 가리키는 의미로 당시 유학자들을 지칭한 것이다. ‘의부에서 은근히 몰아치면서 李苗라고 일컬으며 그의 공로를 줄이고 허물만을 드러낸다.’는 부분은 당시 유학자들로부터 사상·문학적인 면에서 이단이라는 공격을 받고, 또 자신을 알아주지 못함에 대한 불우함과 외로움이 표출된 부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감정은 동계 평생에 누적되어 말년의 작품인 <臨鏡贊>에서도 드러난다. 거울을 바라보고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대상으로 하여 지은 소품문인 <임경찬>에서,

아아! 내 일곱 척의 몸을 아는 자는 약간 뿐인데, 내 한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는 누구인가? 위로는 황천이 나를 알아주고, 아래로는 조석여가 나를 알아주네. 벗으로는 임상정이 7~8분 나를 알아주고, 형으로는 조원명이 나를 5~6분 알아주네. 노자가 말하기를, “나를 아는 사람이 드물면 내가 귀하다.” 하였다네, 아아! 조귀명 한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구나.⁶⁸⁾

上自頭頂下至支末 無非病也 凡心之所嗜樂 事之所經營 率皆以病而不能諧 而世間之良辰吉月 非呻吟之日 卽畏約之時”

라고 하며 자신의 참모습을 알아주지 않는 데에서 느끼는 불우함과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노자의 말을 인용하여 스스로 달래고 있다.

⑫는 또다른 평결부를 붙여 軍談的 요소를 두드러지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楮先生의 평결부를 덧붙여 오원자가 자씨를 멸족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군담형식으로 자세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오원자의 공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평생의 벗과 동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함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회의감 속에서 동계 스스로 자신을 확인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또한 군담적 형식을 사용한 것은 작자가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후에 왕세자를 호위하는 관청인 세자익위사에 들어가 무관벼슬을 잠시 지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소 병약했기 때문에 회구했던 작자의 兼武정신을 드러낸 것이다.⁶⁹⁾

2) 李德懋의 <管子虛傳>

李德懋는 1741년(영조17)에 태어나서 1793(정조17)년까지 살았던 문인으로, 定宗의 別子 茂林君의 10세손으로 父 통덕랑 聖浩와 母 兎山縣 朴師濂의 딸 朴氏夫人 사이에 이남이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이덕무의 兒名은 種大였고 처음 字는 明淑이었는데, 28세 때 『書經』의 ‘德懋懋官’에서 ‘懋官’을 따서 그의 字로 삼았다. 號는 炯菴, 靑莊館 등이 있는데, 晩年에 應旨로 「城市全圖

68) 趙龜命, 『東谿集』 卷6 「贊」 <臨鏡贊>, “嗚呼 知我七尺之軀者 若而也 知我一寸之心者 有誰也 上而皇天知我也 下而錫汝知我也 友而德重 七八分知我也 兄而稚晦 五六分知我也 老子曰 知我者希則我貴也 嗚呼 知一趙龜命者 太多未也.”

69) 김창룡, 「<오원자전>평역」, 『한성어문학』 10, 한성어문학회, 31면 참조

百韻詩」를 選集했을 때 正祖가 그 詩卷에 ‘雅’라고 御筆하니 이로써 雅亭이라 自號하였다.⁷⁰⁾

그는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즐겼는데, 그가 섭렵한 책은 수만 권이 넘고, 鈔한 책도 수백 권이며, 奇聞異語를 抄錄하고, 곤충·초목·금수·충어의 학문에 도 밝았다. 독서와 저술의 증거를 상고하여 정밀하게 변증하고 名物度數·經濟方略·金石碑板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제도와 외국 풍토에 이르기까지 세밀히 연구하는 등 여러 방면에 해박하였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몸이 병약하고 질병이 많았으므로 독서를 부지런히 할 수도 없어 강론하고 학습하는 것이 고루하고, 교도하여 주는 사우도 없었으며 집안이 가난하여 장서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지식을 기를 수도 없었으니 제 아무리 깊이 즐긴다 하여도 그 학문 또한 민망할 정도다.⁷¹⁾

라고 하며 스스로 겸양하였다. 또한 그는 庶族으로서의 신분적 제한에서 느끼는 울분이 깊었는데 그의 조카인 復初에게,

우리나라 서류는 국가에서 출세를 금하고, 종족에서도 크게 욱되게 여기는 바이며, 중사들은 함께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하류들은 마구 나무라니 거의 사람축에 끼지 못하는 실정이다.⁷²⁾

70) 李德懋, 『靑莊館全書』卷16 「雅亭遺稿八」 附錄 <行狀縣監 朴趾源撰>, “嘗應旨賦城市全圖百韻御筆題其卷曰雅 遂自號曰雅亭.”

71) 李德懋, 『靑莊館全書』卷3, 「嬰處文稿一」 <嬰處稿自序>, “益余夙弱多病 不能勤讀誦習固陋 無師友以教導 家貧不藏書無以長知見 嗜雖深 其爲學亦可悶也.”

72) 李德懋, 『靑莊館全書』卷16 「雅亭遺稿八」 書二 <族姪復初>, “東國之庶類者 朝家之大禁 宗族之大僂也 中土恥與談討 下流爲之嗤罵 幾不齒於人類”

라고 하며 그 울분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다방면에 해박했던 그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庶族으로서의 통한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미천한 신분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과거를 생각하고 21세부터 서장에 다니며 과거를 위한 공부를 하였으며, 1774년(영조50) 34세가 되던 가을에 增廣初試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1779년(정조3) 39세에 奎章閣 外閣 檢書官에 임명됨으로써 처음으로 관직에 오르게 된다. 그의 직책은 官階 九品에 불과하였으나 그 자신은 감격해하며,

지존께서 나에게 좋은 벼슬을 내리시며...소시부터 독서와 저술을 좋아하였는데 다행히 글을 숭상하는 세대를 만나고 또 검서의 직책에 있어 늘 책을 편찬하는 일로 고관에 비장된 책을 다 열람해 보게 되었으니 잘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게 됐다고 이를 만하다.⁷³⁾

라고 하였으니, 그의 관료 지향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1792년(정조16) 10월에 정조의 문체반정 정책이 표면화되었는데, 정조는 南公轍이 對策文에 ‘古董書畫’라는 패관잡기의 단어를 쓴 것에 분노하여 남공철의 직함을 깎고 추문하였다. 정조는 이 때 평소 그러한 문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여러 사람들에게 自訟文을 지어 바치게 하였는데, 초정과 아정의 문체도 언급하였다. 53세 되던 해 自訟文을 지어 올리라는 명을 받지만 병세가 위독하여 미처 지어 올리지 못하고 영면하고 만다. 아정의 재식을 아끼던 정조는 그의 죽음을 애석히 여기고 특명으로 유고 『雅亭遺稿』 八卷을 간행하게 했다.

연암 박지원은 「嬰處稿序」에서,

73) 前揭書, 「雅亭遺稿八」 附錄 <先考府君遺事>, “…余自少好看書著書 幸逢右文之世 職忝檢書 每因編書 得看閣古觀所藏秘書 可謂能事畢矣.”

子佩가 이르기를 ‘고상하지 못하구나! 무관의 시 지음이여, 옛사람의 글을 배우고도 그 흡사함을 보지 못하겠구나. 터럭 끝만치도 비슷하지 않으니 어찌 그 소리인들 습불하겠느냐. 야인의 비루함을 편안히 여기고 시속의 자질구레한 것을 즐겨 표현하였으니 이는 오늘의 시이지 예전의 시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이는 가히 불만하다’라고 하였다.⁷⁴⁾

라고 하며, 아정에 대한 당시 유학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유학자들은 일상생활을 문학의 대상으로 삼아 자질구레한 것을 즐겨 표현하는 그의 문학을 비루하게 보았다. 그러나 아정은 일상생활을 문학의 대상으로 삼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진실되게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문학의 특징이 사실성과 진실성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그의 문학이 오늘의 시였지 예전의 시가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옛사람의 글을 배웠다하여 옛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적인 문학을 만들어 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의 문학의 독창성을 의미하며 아울러 연암의 ‘法古而創新’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연암은 ‘今懋官 朝鮮人也’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문학이 조선의 문물을 그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아정의 문학이 자주성에 바탕을 둔 점에 대한 평가라 하겠다.

아정은 연암 박지원과 교류하며 박제가·유득공·이서구 등과 사귀어 젊은 시절부터 뜻을 같이 하였는데, 특히 이 세 사람은 연암의 문하에 자주 모여서 ‘白塔淸緣’라는 모임을 만들었다.⁷⁵⁾ 후대의 史家들은 이들의 사상적 특색을

74) 朴趾源, 『燕巖集』 卷7(한국문집총간 252) 「鍾北小選」 <嬰處稿序>, “佩曰 陋哉懋官之爲詩也 學古人而不見其似也 曾毫髮之不類 詎髣髴乎音聲 安野人之鄙鄙 樂時俗之瑣瑣 乃今之詩也 非古之詩也 余聞而大喜曰 此可以觀”

두고 北學派라 부르기도 하였다.

아정은 庶族이라는 신분적 제한으로 관직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관료 지향적 인물이면서, 한편으로는 天보다 人을 중요시하는 實學派 文人이었다. 그의 이러한 성향은 그의 가전 작품 <管子虛傳>에서 잘 드러난다.

<관자허전>은 그의 문집 『靑莊館全書』 四卷 「嬰處文稿」에 실려 있다. 이덕무의 傳은 그 기록연대가 확실하지 않으나 그 창작시기별로 배열한 『全書』의 편집태도나 전의 내용으로 보면 그의 전 작품들 중에 가장 먼저 창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⁷⁵⁾ 그리고 정조 14·15년에 御命으로 지어진 <銀愛傳>과 <金申夫婦傳>⁷⁷⁾보다 훨씬 앞부분에 실려 있고, 정조 3년(1779)에 첫 임관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전후에 지어진 것이라 하겠다.

<관자허전>은 대나무를 입전한 작품으로 『事文類聚』의 話素를 적극 활용하여 이야기를 편철하는 식으로 꾸미고 있는데, 梗概는 다음과 같다.

- ① 管氏는 기오 출신으로 자는 子虛이고 이름은 擇이다.
- ② 조상 중에 해곡에 은거하는 자가 있었는데, 黃帝가 伶倫⁷⁸⁾으로 하여금 그를 발탁하여 黃鐘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그 자손들이 자라 번성하여 흩어져 살았는데 중간에 위천 땅으로 옮긴 자들이 자못 밝은 덕을 가지고 있었으며, 孤竹君이 가장 뛰어났다. 이 사람이 자허를 낳았다.
- ③ 자허는 혈통이 빼어났으며, 용의 허리와 무소밭의 자태를 지녔는데, 고죽군이 그를 ‘관씨의 푸른 낭간’이라 하며 칭하였다.

75) 이명진, 「청장관 이덕무의 문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10면

76) 上揭論文, 68면

77)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16 「雅亭遺稿十二」 「應旨各體」 <銀愛傳>·<金申夫婦傳>

78) 黃帝의 신하로, 嶰谷의 대나무를 이용하여 악률을 만들었다고 한다.

- ④ 자허는 마음이 텅 비었고 바깥이 맑았는데 一貫의 道를 얻어 부자[孔子]의 울타리를 엿보았으며, 일찍이 嵇康 등 竹林七賢과 李白 등 竹溪六逸의 주인이 되었는데, 대개 그의 고상함을 취한 것이다.
- ⑤ 周나라 때 生成翁이라는 자가 자허의 풍도를 듣고는 그 만남이 늦음을 아쉬워했다.
- ⑥ 황제의 밝은 다스림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중에, 꿈속에서 동군이 나와 신하 한 사람을 주었다. 이에 文與可에게 그의 상을 그리게 하여 전국에 어진이를 구하는 조서를 내렸다.
- ⑦ 생성옹이 자허를 천거하니 임금이 자허를 국빈으로 맞고는 매우 기뻐하였다.
- ⑧ 자허가 임금을 알현함에 그 곳곳함을 굽히지 않았으나 임금은 그의 겨레에게 위천 땅을 봉해주고 천호후 등을 하사하였다.
- ⑨ 황제는 매번 여러 왕들과 함께 자허를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그의 아들이 의젓하게 서 있는 모양을 보고는 탄복하였다. 자허는 筆·箭·簫·籟·簞·箏·箎·箛의 여덟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다. 딸은 기춘현 부인에 봉해졌고 한동안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나, 그녀의 관절 마디가 번거롭게 많음에 곧 내쳐졌다.
- ⑩ 자허는 60세에 속이 좁스는 병으로 비쩍 말라 죽었다.
- ⑪ 자허는 충실한 덕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管은 본래 竹氏로 순임금 앞에 벼슬했던 이가 성씨를 관으로 고친 것이다. 그 후예는 대대로 위천에 살았는데 고답한 인물이나 시인들이 그들과 한번 교류하기를 바랐다. 그중 춘추오패 시절, 夷吾⁷⁹⁾는 권모술수로 齊桓公을 보좌하였는데, 뜻있는 군자들이 관씨의 가풍을 손상시킨 것이라 하며 애석해하였다. 漢

79) 管仲을 의미한다.

나라 말에 管寧⁸⁰⁾은 魏나라에 벼슬은 하지 않았으나 그 집안의 유품과 여운을 간직했으니, 이는 생성옹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었다.

⑫ 생성옹은 관씨를 천거한 공로로 大司命을 제수받았다.

①, ②는 인정기술 부분으로 序頭-先系로 구성되어 있다.

③~⑩은 행적기술 부분으로 事跡-後系-終末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의 전개나 갈등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많은 고사를 사용하여 자허의 성품과 행동을 예찬하며 전체 분위기를 담담하게 전개하고 있다. ④에서 ‘마음이 텅 비었고 바깥이 맑았는데 一貫의 道를 얻어 부자의 울타리를 엮보았다.’는 말은 『논어』 「異仁」 편에서 연유된 말로 자허가 孔子의 道를 깨쳤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죽림칠현·죽계육일·소식·원운·왕자유 등 인물들의 대나무와 관련된 고사나 일화를 인용하여 자허의 고상한 인격을 묘사하고 있다. 김창룡은 이러한 소재들이 『事文類聚』의 竹門 조항과 비교해서 볼 때 거의 유사를 취합해 놓은 선서요어와 고급사실의 재구성화에 불과하다며 <관자허전>의 독창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소재의 정보를 『사문유취』에서 얻었다고는 하나 대나무의 곧은 성질과 대나무를 즐겨했던 문사들의 성격을 적절하게 선별하여 자허의 성품과 교우관계를 잘 묘사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⑤~⑦부분에서 자허는 생성옹의 천거를 받아 등용된다. ⑤에서 생성옹은 ‘그대는 굳세어서 덕을 심은 자가 아니던가? 비어서 무심한 자가 아니던가? 곧아서 절조가 있는 자가 아니던가? 눈을 즐기던 장부와 얼음과 서리의 처사 모두 내가 얻어서 배식했는데 어찌 그대와 의 만남만 유독 늦는단 말인가?’⁸¹⁾라고

80) 삼국시대 魏 나라 사람으로 뜻이 강하고 덕망 높았던 선비이다. 황건적의 난리를 피해 요동으로 갈 때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德化로 이끌었다. 난이 평정되고 위문제가 그를 자주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81)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4 「嬰處文稿 二」 <管子虛傳>, “豈非固而樹德者耶 虛而

하며 자허와의 만남을 아쉬워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재를 천거하는 생성옹의 역할과 자허가 늦게 출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정의 삶이 투영된 것으로 <관자허전>이 아정이 등용된 후에 창작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생성옹이 자허를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늦은 만남을 아쉬워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고 이것으로 아정이 등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⑥에서는 文與可가 ‘드세지 아니하고 무르지도 아니하며 가운데는 비어있고 바깥은 견고하니 고인의 풍도와 군자의 절개가 응당 벼슬에 임해서도 참됨을 지녔도다. 지조가 아니겠는가?82)’라고 점을 쳤다. 이 모두 자허가 지닌 德을 칭송하면서 작가가 자신의 ‘德’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하겠다. ⑦에서 생성옹은 ‘풀을 높게 하는 어진 바람과 갈대를 자라게 하는 민첩한 정사83)’라 하며, 군자의 德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로 자허를 천거하였다. ⑨는 후계부분으로 자손들에 관해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 글의 전개를 지루하게 만들고 있으나, 아들들을 붓, 화살, 통소, 제기, 죽간, 낚시대, 지팡이, 발 등으로 설정하여 그 특성에 맞게 성품을 서술하고 있는 점에서 작가의 일상 생활도구에 대한 관심과 실용성을 엿볼 수 있다.

⑪, ⑫는 평결부분으로 史評대신 讚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허의 덕을 예찬하고, 다시 그의 선조를 이야기하여 이오를 욕하고 관령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생성옹의 扶植之恩이 아니면 그 어찌 이렇게 뛰어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면서 생성옹의 천거를 칭찬하고 있으며, 선비를 올바르게 추천해주지 못하는 세태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불우함을 드러내었다. 작가는 천부적인 자질을 중시

無心者耶 貞而有節者耶 傲雪之丈夫 凌霜之處士 五皆得而培植之 何見君獨晚也。”

82) 前揭書, “不剛不柔 虛中堅外 古人之風 君子之節 其當出任 有眞哉之操歟.”

83) 前揭書 “偃草上之仁風 資蒲蘆之敏政”

하면서도 그 자질을 알아봐주는 자의 필요성을 드러냈는데, 이는 벼슬을 추구하는 작가의 관료지향적인 의식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⑪에서 보면 管은 본래 竹氏였다가 벼슬을 하면서 管으로 고쳤다고 하였는데, 아정의 관료지향적인 성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아정은 庶族으로서의 신분적 제한으로 느끼는 울분이 컸던 인물이었다고 그러한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관료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대나무의 곧은 절개를 빌어 자신의 재능을 내보이면서, 자허는 생성옹의 천거로 등용되었지만, 자신의 처지는 그러하지 못했음에 대한 불우함을 假傳을 지어 표출한 것이다. 후에 정조는 才識은 있으나 신분적 제약으로 관직에 오르지 못하던 선비를 선정하여 규장각에 검서관으로 임명하였는데, 아정이 그 선두로 뽑혔다.

<관자허전>은 아정의 다른 전들에 비해 유교적 사관에서 창작되어진 작품이다. 善政의 요건인 實德을 가진 자허가 생성옹의 천거에 의해 등용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이덕무 자신의 출세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신의 재식을 알아봐줄 수 있는 생성옹 같은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실학자답게 일상생활의 도구를 활용한 부분이나 ‘實德’의 사상을 드러낸 부분에서는 그의 실학정신도 엿볼 수 있다.

3) 李頤淳의 <花王傳>

李頤淳은 1755년(영조 31)에 태어나서 1834년(순조 33)까지 살았던 조선후기 문인으로 字는 釋養이고, 號는 後溪, 晚窩, 兢齋, 六友堂이라 하였다. 六友는 松·竹·梅·菊·蓮·杞를 의미하는데, 평소 花卉에 ‘趣’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릴 적 외가에 가서 外曾王考로부터 ‘큰 인물이 될 것이다.(此兒後必做大

器.)'라는 칭찬을 받았고, 행동거지가 凝重하여 가볍게 말하거나 웃지 않았으며, 8세 때 三從大父 櫟窩公에게 소학을 배우고는 '반드시 이것으로 법을 삼아라.(必以此爲法)' 하여 그대로 행하였다. 18세에 宣城 李氏 漢佑女와 결혼하였으며, 정조 3년(1786) 생원시를 치루었고 李鼎揆에게 第一이라는 칭찬을 들었다. 정조 10년(1793)에 寓本縣 晩村으로 옮기고는 집을 '晩窩'라고 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정조 14년(1799)에 母夫人喪을 당하여 浮浦의 舊庄으로 돌아가 後學을 양성하는데 몰두하였다. 李觀祥은 金容淵 宗發에게 '李某(頤淳)는 독실하고 순검하여 참으로 儒賢의 모범'이라 칭찬하였고, 權文度도 '李某(頤淳) 이야기가 나오면 옷깃을 여밈 정도'로 경외하였다고 하니, 평소 유가적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 30년(1806) 恩津縣監에 제수받아서 죄인을 다스림에 공평하였고 상벌을 엄격히 하였다. 竹林書院의 일로 감영의 뜻을 거슬렀고, 각 고을의 원들도 감영에 나아가 그 뜻을 따르는데 홀로 하지 않았다가 그해 겨울에 내쫓겼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정조 35년(1811) 가을에 집 뒤 巖瀑小壁에다 두 칸의 집을 세우고 室을 '兢齋', 堂을 '後溪'라 하였고, 정원에 매화 한 그루를 심고 계단에 黃花를 여러 수 심고는 軒을 '六友'라 하고는 매일 그 안을 거닐며 嘯詠自適하였다. 절세의 공경 받음을 사양하고 평생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항상 학자는 知行이 모순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계하였다. 晩年에는 禮書에 뜻을 두어 諸說을 참조하여 자기의견을 만들어 질문에 답하고 成書까지 하였으나 자기 이름은 두지 않았다. 陰陽象數의 글이나 農工技藝의 일에도 모두 방통하였으며 청렴결백하였다. 가문의 대소사를 主張하고 伎矜之言과 誇耀之態를 경계하여 그 규범을 후세에 전하고자 <無忝歌>를 지었다. 또한 산수를 좋아하여 風利景暖을 따라 유적지를 소요하면서 느긋한 마음가짐으로 살았다. 1832년 2월에 祖老妣의 墳墓를 개축하고 閏월 28일에 운명하니 향년 79세였다.⁸⁴⁾

후계의 이러한 생활과 사상은 평생 유가적 관념에서 어긋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은 그의 가전 작품인 <花王傳>에도 잘 드러난다.

후계의 <花王傳>은 ‘少時作’이라고 註記되어, 그의 문집 『後溪濶』卷6 「傳」부분에 실려 있다. 신동익은 「一樂亭記 作家 小考」⁸⁵⁾에서 少年作보다는 晩年の 作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전 창작이 젊은 시절에 이루어지는 것과 ‘소년작’이라는 주기로 볼 때 어느 것이 정확한 추측인지는 알 수 없다. 후계는 평소에 좋아하였던 六友를 입전하여 <화왕전>을 창작하였는데, 梗概는 다음과 같다.

- ① 왕의 성은 姚이고 이름은 黃이다.
- ② 그 계통은 낙양에서 나왔으며 부귀한 관상으로 온 무리가 그를 받들어 왕으로 삼으니, 2월 봄에 즉위하여 연호는 甘露라 하였다. 요임금의 검소함을 따랐으며, 魏紫를 황후로 삼았다.
- ③ 화왕이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라고 命하여 여러 사람들이 芍藥을 추천하고, 약을 찾아 재상으로 삼았다. 다시 약이 梅花와 竹, 菊花가 맑은 수양과 절개를 지니고 있다고 추천하여 그들을 불러들였는데, 매처사와 죽군자만이 부름에 응하였다. 천하의 어진이를 불러 각각의 임무를 주어 나라를 잘 다스려 春臺·壽域의 조화를 이루었다.
- ④ 화왕이 춘추가 높아지면서 사치와 색망이 심해졌는데, 傾國之色이라는 海棠花에 빠져 별궁에다 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享樂을 일삼았다.
- ⑤ 죽이 충간하였으나 화왕은 듣지 않았다.

84) 권정화, 「한국 가전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43면
참조

85) 신동익, 「一樂亭記 작자 小考」, 『국어국문학지』 99호, 국어국문학회, 1988, 123면
참조

- ⑥ 그러다 蓐收의 신이 서쪽에서 금풍을 몰고와 나라가 황폐해졌고, 화왕은 神色이 참담해져 죽고 나라는 망했으니, 짚았던 변화가 槐安國⁸⁶⁾의 꿈과 같았다. 작약은 죽고, 죽은 질개를 지켰으며, 매화는 버려졌고, 오직 국화만이 화난을 면하게 되었다.
- ⑦ 太史公曰 부귀와 번영, 화려함은 사람이 바라는 것이지만 또한 사람이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기도 하다. 모란이 꽃 가운데 으뜸인 까닭은 그 부귀함이 승상할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꺾여지면 매화나 국화만 못하게 되니 그 부귀라는 것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아!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끝까지 변치 않는 질개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①은 인정기술 부분으로 序頭만 있고 先系는 생략되어 있다.

②~⑥은 행적기술 부분으로 事跡-終末로 이루어져 있고, 後系는 생략되어 있다. ②, ③에서 부귀함의 상징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란을 의인화하여 화왕으로 설정하고 작약·매화·죽·국화를 그 특성에 맞게 의인화하여 등장시켰다. 이 부분은 화왕이 천하의 인재를 불러 適才適所에 등용시켜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는 부분으로 仁政을 행해야 할 왕의 도리를 보여주고 있다. 『論語』 「爲政」 편에 ‘정사를 德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못별들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⁸⁷⁾고 하였다. 이 말은 정사를 德으로 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천하가 돌아온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왕이 덕으로써 정사를 다루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 말을 하지

86) 唐시절에 淳于棼이란 사람이 槐나무 아래 졸다가 꿈 속에서 인간의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나라이다.

87) 『論語』 「爲政」,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

않아도 敎化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德治之治의 善政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④와 ⑤부분은 화왕의 사치와 호색이 심해지면서 국가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장면을 서술하면서 호색하는 군자를 풍자하고 있다. 아울러 화왕의 잘못을 곁에서 충간하는 죽의 충절을 드러내면서 신하로서의 도리를 풍자하고 있다. ⑥에서 작약과 모란은 시들지만 국화는 가을에 개화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국화만 홀로 화를 면하였다고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權勢와 利得 사이에서 벼슬하지 않고 몸을 보존하는 處世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⁸⁸⁾ 작가는 ‘이미 밝고 또 분명하셔서 이로써 그 몸을 지켜갔도다!’라는 『詩經』 「大雅」 편의 <烝民>의 한 구절⁸⁹⁾을 인용하여 菊의 德을 칭찬하고 있다. ⑦은 평결부 부분으로 화왕인 모란이 젊어서는 인재등용에 현명함을 보이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올바른 도리를 하였으나, 늙어서는 부귀공명과 여색에 빠져 정사를 소홀히하여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람이 젊어서는 그 절개를 지키기 쉬우나 늙어서는 부귀공명에 대한 貪心으로 節操를 지키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대개 화왕계류 작품의 내용에서는 왕이 선정을 베풀다가 여색을 가까이 하여 충신을 멀리하고 충간을 듣지 않는 과오를 범한다. 善政이라는 것은 왕이 適才適所에 알맞은 인재를 등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아울러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왕의 입장에서 ‘君君臣臣父父子子⁹⁰⁾’와 일맥상통하는 德治之治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후계의 <화왕전>은 왕의 덕치보다는 신하, 넓게는 인간의 변하지 않은 절개와 절조를 강

88) 권정화, 「한국 가전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89) 『詩經』 「大雅」 <烝民>, “既明且哲 以保其身”

90) 『論語』 「顏淵」, “齊景公 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臣臣父父子子 公曰 善哉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而食諸”

조하고 있다. 일년 사계절 중 다른 꽃보다 늦게 개화하여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 국화를 높이 평가하여 국을 중심으로 신하의 절개와 절조를 칭찬한 것이다. 이로써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바는 부귀가 아니라 절개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곧 신하의 올바른 도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4) 李羲老의 <南靈傳>

李羲老는 1760년(영조 36)에 태어나서 1792년(정조 16)까지 살았던 문인으로 고려 말 李穡의 15대 孫으로서 字는 元鄉이며, 號는 蟾齋이다.⁹¹⁾ 섬재는 1760년 庚辰 8월에 漢城 盤松坊 雇洞에서 태어나서 13세에 한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父 判官公을 따라 화순·가평·해주 등지에서 지냈으며, 15세에 靑松 沈氏 府使 公藝의 女와 혼인하였다. 24세에 漢城試, 25·26세에 庭試를 보았으나 모두 통과하지 못하였다. 32세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東田의 蟾山에 장례하였으며, 33세에 漢師의 月巖第에서 사망하였다.⁹²⁾

태어나면서부터 독특한 기질이 있고 용모가 장대하여 판관공이 기애하여 일찍이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⁹³⁾

부모를 섬김에 정성과 효를 다하였고, 임금을 섬김에 독실하고 지극히 하였으나 만년에 병이 많았다.⁹⁴⁾

이와 같이 섬재는 어려서부터 재능을 보였으나, 세 차례에 걸친 科試에 낙방

91) 李羲老, 『蟾齋遺稿』 「年譜」

92) 前揭書, 「家狀」

93) 前揭書, 「年譜」 “生而有異質 容貌魁梧 判官公奇愛之 嘗曰 必爲偉人”

94) 前揭書, 「行狀」 <洪養默> “事親誠孝 篤摯先君 晚年多病”

하고 만년에 상을 거듭 당하고는 성실히 예를 다하면서 몸이 심약해져 요절하였다. 경제적 형편은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자신의 代에서는 통과하지 못하였지만, 父代까지 대대로 관직을 향유한 집안이었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⁹⁵⁾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세 차례나 科試에 낙방하였다.

속자들이 급급하게 달려들어 다투어 책을 읽고 학업을 전공하면서 무리 중에 되기를 바라지 않음이 없으니 또한 장차 한가롭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다행히 이와 같이 면하게 되었으니, 능히 알고 행하며 올바르게 수련할 수 있어 祖業을 이을 수 있다. 이로부터 또한 출세를 얻어 임금을 섬기고 사업을 주장하여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란다. 그 전에 …… 은둔하여 내 한 몸을 위해 始終之計를 세워보니 그 마음은 오로지 세상을 피해 있고 근심이 없다.⁹⁶⁾

科試에 낙방하고 은둔하여 심신을 수련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섬재는 당시 정조는 소설문체를 배격하고 고문운동을 펴고 있던 시기였기에 그의 글은 정책에 부합되는 글로 당시의 고문주의자들로부터 칭찬과 규범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⁹⁷⁾

선조 초년에 심의렴(청송 심씨)과 김효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당쟁은 조선 사대부들의 교우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섬재의 친인척 관계를 살펴보

95) 구영진, 「南靈傳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18면 참조

96) 李義老, 『蟾齋遺稿』卷3 <無憫軒記>, “俗子汲汲奔競 則讀書攻業 非徒不願爲 亦將無暇矣 今幸得免於此 而能知行誼之爲可修 祖業之可繼 自此又幸得以出身事君 展發輪困 做一事業 爲世名顯 則其前之……則隱爲吾一身終始之計 而其心則專在於遯世而無憫”

97) 구영진, 「南靈傳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64면 참조

면 청송심씨, 연안김씨 등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金綱도 노론이었다. 따라서 본인은 등과하지 못하였더라도 당시의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섬재의 사유 형태의 특징은 사변적이라는 점에서 조선 학자들과 동일하다. 인간은 물론이고 사물의 성격도 數理的·觀念的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관점을 취하는데, 관념은 하나의 道로 향하여 집중되어진다. 즉 道를 절대적인 善이면서 理의 가치기준으로 설정하고, 문장도 六經을 가장 모범으로 삼는다. 道를 文보다 앞세우며 각 시대의 문풍은 서로 통하며 계승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섬재의 복고주의적이며 고문 위주의 문풍은 당시 정조의 문체반정 정책과 일치하고 있다. 그는 또한 治者의 관점을 고수하여 사유에 있어서도 자아의 내적 세계보다는 외적 세계에 더 관심을 가진다. 또한 歷史에 초점을 잡고 있으며 그 역사는 하나의 절대적 진리인 道에 의해 통일된다.⁹⁸⁾ 그의 이러한 세계관은 가진 작품 <南靈傳>에서도 드러난다.

<남령전>은 그의 문집 『蟾齋遺稿』卷三에 실려 전한다. 섬재는 생전에 주로 科詩를 주로 지었고, 후에 古文을 체득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사실과 과거에 실패하고 은둔한 시기, 그리고 친구인 김강과 서로 문체에 대한 논의를 많이 주고받았던 시기가 일치하는 정조 14년(1790년)에서 정조 15년(1791) 사이에 <남령전>이 창작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⁹⁹⁾ <남령전>은 담배를 입전한 작품으로 그 梗概는 다음과 같다.

① 南氏의 이름은 靈이고 자는 烟茶이다. 包羲氏가 세상을 열때 屯이라하여

98) 구영진, 「南靈傳 연구」, 96면

99) 上揭論文, 41면 참조

雷電의 象으로 經論하였는데 이것이 남씨의 시초이다. 시조 南正重은 火正黎와 벗하였으며 자손이 번성하였으나 神農氏때에 系를 잃고 夏殷때 창남에 식읍하였다. 진시황제 때 장남족이 육곡을 해치므로 쫓겨나서 청정도에 머물렀다.

- ② 음란한 행위로 사람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冶容이라는 자와 남씨의 아들이 澹婆를 낳았다. 담파가 배를 타고 우리 땅에 들어오니 사람들이 기뻐하며 따랐으나 火鳥之流일 뿐이었고, 우리나라의 지식 있는 선비들은 내심 그를 괴이하게 여겼다. 대마도의 장군 橋康廣이 남쪽 변경에서 요란하게 지냈으나 조정에서는 알지 못하였다. 임진년 왜구가 조충으로 나라를 초토화하는데 담파가 전후의 敎導역할을 하였다. 난이 끝난 뒤에야 조정에서는 금지했으나 ‘먹은 것을 소화하게하고 자극성 냄새를 물리치는 처방’이라고 여기고 멀리하지 않으니 팔방으로 퍼졌다.
- ③ 담파는 유점 田氏의 집안에서 테릴사위 노릇을 하다가 靈을 낳았다. 령은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났으며 南華經을 읽는 것을 좋아하여 남생원이라 하였다.
- ④ 우리나라에서 鐵木天子에게 장병을 보낼 때, 임경업 장군 밑에서 금위령 포수로 참군하였다가 철목천자의 총애를 받게된 후로 남령은 밤낮으로 높은 벼슬의 사람들과 더불어 천자를 모셨다.
- ⑤ 天竺·莎車 등의 나라를 정벌하는데 령이 우림대장군에 제수받아 團花袍¹⁰⁰⁾를 걸치고 蒲梢馬¹⁰¹⁾를 타고 출두하니 천자도 周條侯의 고사¹⁰²⁾를

100) 宋代에 공신들에게 하사하던 戰袍로 그 군복 위에 둥그런 꽃무늬를 수놓았던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101) 『漢書』〈西域傳〉, “蒲梢 龍門 魚目 迂血之馬 充于黃門”

102) 漢나라 때 周亞夫라는 사람의 封號. 文帝 시절 흉노가 대거 침략했을 때 아부가 장군이 되어 細柳 땅에 주둔하였는데, 문제가 營門에 오자 軍務를 중시

따르게 하였다. 일찍이 담파의 글만 읽어 오행진에 능하였으므로 빠르게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 ⑥ 천자가 크게 기뻐하고 향연을 베풀고 벼슬을 내렸으며 湯·沐 30군을 식읍하고 烟香伯에 봉해졌다. 령은 부귀해져서 매일 네 가지 술을 마셨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자기의 소소한 의지를 굽혀 남의 아래에 처사하였으므로 더욱 이름이 났다.
- ⑦ 독고씨에게 장가들었다. 어느 날 獨孤夫人이 人生無常을 말하니 령은 문을 닫아 걸고 스스로를 赤松子라 칭하며 호흡의 방술을 배웠다. 이에 황제는 음식도 맛이 없게 되고 잠자리도 편치 않게 되며 얼굴빛도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다가 승하하였고, 령도 따라 명을 다했다. 독고부인은 자식을 낳지는 못하였으나 대신 澹排蕢를 서자로 키워 그 系를 이었다.
- ⑧ 그 자손은 전국에 퍼졌으며 선비들이 더불어 즐겼다. 모두 태현경을 읽고 령혼을 부르며 령을 칭송하였다. 비록 남씨의 종족이 200년에 걸쳐 이름을 드러냈으나 오직 남령만이 중국에까지 들어가 그 맥을 이은 것이다.
- ⑨ 남령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어디로 가든지 그 영화를 드날렸다. 혹 천하 사람들이 그가 나쁜 존재인가 의아해하며 물으면 ‘그야말로 독선적인 취향이 없는데 어찌 나쁘다고 하겠는가?’라고 하며 온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그를 嗜好하게 되었으니 모두 治容의 말과 같이 된 것이다.
- ⑩ 太史公曰 大禹와 宣尼는 儀狄과 鄭音을 멀리하셨는데, 두 성인은 후세에 술과 음악이 사람을 고희케 만들 줄을 살피 아셨던 것이다. 이제 칠팔세 어린아이조차 남씨와 어울려 즐기니 아무리 말려도 아니 된다. 풀은 바람을 쫓아 쏠리는게 아니겠는가!

하는 뜻으로 황제에 대한 拜禮를 생략했다는 고사이다.

①, ②는 인정기술 부분으로 序頭-先系로 이루어져 있다. 령이 출생하기 전까지의 조상들을 대략적으로 서술했는데, 이는 담배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상황과 일치한다. 그리고 남령의 근본적인 성격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③~⑨는 행적기술 부분으로 事跡-終末-後系로 구성되어 있다. ③~⑥은 남령이 태어나 초야에서 등용되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영화를 누리는 부분으로 남령의 생애를 서술했다. ⑦부분에서 작가는 독고부인을 빌어 ‘인생이란 잎새 끝에 맺힌 이슬과 같고 부싯돌에 튀는 불과 같은 시간입니다. 인생의 오고 감이 한푼의 값어치만도 못한 것입니다. 일을 이루게 하는 근본은 하늘이고 사계절의 흐름도 제 할 일을 이루면 또 가는 것인데, 당신께서도 이제 그 때가 아닌가 합니다.’¹⁰³⁾라며 人生無常을 드러내고 있다. 남령의 인생은 어떠한 실패도 없었으며, 나이가 들어 버림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령의 삶과는 반대로 천자와 나라는 황폐해지고 망국으로 치닫는다. 남령은 모든 淫亂의 주인공이면서 또한 천자에게 충성하는 신하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립적 구조는 작품에 위기감을 조성시키고 있다.¹⁰⁴⁾ ⑧과 ⑨는 남령의 후계에 대한 서술부분으로 본문에서는 각 지방에서 나는 담배의 종류와 특징, 담배의 애호상황을 길게 나열하고 있다. 당시 애연가들이 전국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⑩은 평결부 부분으로 <남령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정반대로 담배의 부정적인 면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제 칠팔세 어린이들도 남씨와 어울

103) 李義老, 『蟾齋遺稿』 <南靈傳>, “人生如葉頭露 且石火光陰 蜩來不直一文錢 所以成者天 四時之序 成功者去 卿卿此其時乎.”

104) 구영진, 「南靈傳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9면

려 즐기니 그 아버가 매일 회초리로 못하게 해도 아니된다.’고 하며 담배가 사회적으로 깊게 뿌리박혀 있음을 경계하였다. 그러면서 ‘풀이야 바람을 쫓아 쏠리는게 아니겠는가!(草尙以風)’¹⁰⁵⁾라며 당시의 사회 전반적 상황이 담배의 남용을 만들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담배 령의 긍정적인 면을 서술하면서 평결에서는 반대로 부정적인 병폐를 들었는데, 작가는 담배를 의인화해서 령이란 인물을 만들고 설정하면서 아울러 령 자체를 狄으로 설정하였다. 表面的으로는 충성스런 신하이지만 裏面的으로는 천자와 나라를 황폐화시키는 惡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담배의 폐해를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담배를 좋아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어 스스로 병들게 된다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직접 느끼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이다.

5) 李 鈺의 <南靈傳>

李鈺은 全州 李氏 孝寧大君派로서 太宗의 둘째아들인 효령대군의 후손으로, 부친은 常五이고, 조부는 東胤이며, 형제가 네 명이 있었으며, 그의 집안이 무반 출신의 한미한 서족임이 처음 밝혀지게 되었다.¹⁰⁶⁾ 무반 출신의 한미한 집안이기에는 하였으나 명칭의 희귀본들까지 접하고 소장하였던 것¹⁰⁷⁾을 보면 비교적 부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옥의 字는 其相이고 號는 文無子, 梅史, 梅庵, 梅谿子, 靑華外史, 梅花外史 등이 있다. 출생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105) 『論語』 「顔淵」 19장, “草尙以風”

106) 김영진, 「이옥 연구(1)」, 한문교육연구, 한문교육학회, 2002. 처음으로 이옥이 본관이 전주이며, 효령대군에 속함을 밝혀내었다.

107) 김영진, 「조선후기 명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34면

그가 유생으로 지냈던 시절이 정조 16년의 『實錄』에 보이며, 金鑣와 절친한 사이라는 점과 문무자의 享壽가 50세인 점 등으로 볼 때, 1760년대로 추측하고 있다.¹⁰⁸⁾ 문무자는 15세에 결혼하고 30여세가 되던 정조 16년(1792) 10월에 처음으로 과거에 응시하였다.

왕께서 대사성 김방행에게 일러 말하길 성균관 시험의 시권에 조금이라도 패관 잡기가 있다면 그 글이 주옥으로 가득하여도 낮은 점수를 주고 이에 그의 이름을 내걸어 과거를 정지시키고 벌여쓰지 못하게 하였다. …… 어제 유생 이옥이 임금의 명에 의해 임시로 보이던 과거의 시문을 지었는데 순전히 소설문체를 사용하였다. 선비들의 답습이 극도에 이르러 극히 놀랄만하다. 바야흐로 성균관 일과 사육문 50제를 채워 구체를 버린 뒤에 과거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였다. 이것은 한낱 유생에 지나지 않아 그 영향이 크지 않으나 높은 관직에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체를 依倣하는 자가 있음이 많으니 어찌 걱정이 크지 않겠는가?¹⁰⁹⁾

이를 보면 그는 문체로 인해 그의 벼슬길이 막혔음을 알 수 있다. 自訟文을 지어 자신의 문체를 고칠 것을 맹세한 많은 문인들은 애초에 패사소품의 의의를 의식한 채, 귀족적인 취향의 하나로 유행했던 문체를 한번씩 따라본 것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문무자는 여러 번 과거의 낙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문체를 바꾸면서 立身揚名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리낌 없이 方言과 異諺을 사용하여 문장을 지었다. 이것은 자신의 문학에 대한 확신과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나이 오십에 가까워서는 ‘내 나이가 이제 오십인데 이미 벼슬 구함에 뜻이 없다.’¹¹⁰⁾라고 求任의 뜻을 스스로 단념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직에의 단념은 自意라기 보다는 재능을 무

108) 김균태, 「이옥의 문학사상 연구」, 『현실과 인식』 4호, 한국구비문학회, 1977

109) 『正祖實錄』 36, 17면

110) 金鑣, 『薄庭叢書』 <却老先生傳>, “余年今五旬 已無意於求任矣.”

시하고 가문과 당파를 중시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이라 하겠다. 결국 그는 그의 포부를 펼쳐 보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무자는 그의 전 생애를 걸쳐 문학을 통해 자신의 이상과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다.

정조 19년(1795) 가을에 充軍되어 충청도 정산현에, 9월에 영남 삼가현에 기거하다가 익년 봄에 別試를 보러 와서 장원을 하였으나 榜末에 붙여졌다. 문무자가 充軍된 이유가 특별히 문헌에 제시된 것은 없으나, 그의 개성적인 문체가 그 원인이었을 것이다.

문무자는 청장년기를 줄곧 서울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기의 서울 문인들의 시문집에 그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반으로 기운 서족 출신의 한미한 집안이라는 점과 문체 때문에 정조로부터의 받은 불명예스러운 낙인으로 그의 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문무자의 이러한 독특한 성향의 개성적인 문장은 그의 가전 작품인 <南靈傳>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남령전>은 김려의 『薄庭叢書』卷二十一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본문에 ‘天君御國之三十二年 夏六月 大霖雨 躡月不止’라는 언급과 김영진 논문에 ‘남령전도 이 때 썼다.¹¹¹⁾’라는 언급으로 미루어 보면 작가가 성균관에 재학하고 있을 무렵, 즉 31~33세쯤 되는 여름 장마철에 창작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섬재의 <남령전>의 반이 채 못 되는 분량이지만, 섬재의 작품보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다. <남령전>은 담배를 입전한 것으로, 남령과 수심을 의인화하여 남령이 수심을 몰아내는 구성의 心性假傳에 속한다. 梗概는 다음과 같다.

111) 김영진, 「조선후기의 명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137면

- ① 南靈의 자는 烟이다.
- ② 淡巴菰라는 조상이 있는데 의술로 이름이 나서 南平伯에 봉해져 자손들이 마침내 성씨로 삼았다.
- ③ 령은 담파고의 후예로 체구가 작고, 날래며 사납고, 거무스름한 누런빛을 하고 있는데, 명서를 익혀 火攻에 능하였다.
- ④ 靈臺 땅에 도적, 秋心이 군사를 일으킴에 여러 지역이 함락되었고, 천군도 포위당했다.
- ⑤ 이에 천군의 명으로 黃卷이 근해로부터 구곡하에 가려했으나 도적이 불을 놓으니 眉山에서 들어가지를 못하였다. 이에 어떤 이가 령을 추천하니, 령은 신화장군 남평후에 봉해져 적을 크게 무찔렀다.
- ⑥ 천자는 령을 西楚霸王에 봉하고 九錫을 더하였으며 남령의 仁·智·勇을 칭송하였다.
- ⑦ 도당인 憂心이 기해중에 은복해 있으므로 남령은 楚國으로 떠나지 않고 조정에 머무르며 진향사·각처사·주천태수를 겸하여 권세가 매우 두터워졌다.
- ⑧ 천군이 일찍이 그를 가리켜 ‘하루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라고 말하였다.
- ⑨ 花史氏曰 이전에 韓慕廬 莢이 南烟과 麴生과 더불어 망형을 벗하였는데, 만약 한사람만 사귄 수 있다면 어느 쪽을 버리겠냐는 질문에 연은 죽어도 버릴 수 없다고 답하였다. 나의 남군에 대한 심정도 다를 것이 없어 이에 傳을 지어 기록하는 바이다.

①, ②는 인정기술 부분으로 序頭-先系로 이루어져 있다. 선계는 간략하게

담배고의 의술능력을 서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담배가 최초로 사용되었던 사실에 배경을 두고 있다.¹¹²⁾ ③에서는 령이 한미한 출신이고 불품없는 외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火攻이라는 자신만의 능력을 가진 인물임을 묘사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한미한 신분이지만 자신만의 개성적인 문장에 능한 작가 자신을 대변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③~⑧은 행적기술 부분으로 終末이 빠져있고, 事跡-後系로 구성되어 있다. ③부분에서는 남령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⑥에서 서초패왕의 의미는 林泳의 <義勝記>에서 ‘如項梁得楚王故事 王之名又與楚王同 遂號義帝’¹¹³⁾라 하여 천군을 초왕 의제로 설정한 것과는 상반되게 부여된 서초패왕의 의미이다. 남령은 연약한 의제와 같은 인물이 아니라 강인하고 능력 있는 서초패왕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천자는 남령의 능력을 칭송하였는데, ‘초분에서 떨치고 일어나니 그 향기가 제왕에게 알려져 위엄 있는 행동으로 전쟁에 나아가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듯이 적을 무찔러 공격이 파죽지세를 이루니, 철통의 깊은 포위망을 풀어놓았다.’라며 담배가 타는 모습에 전쟁 상황을 가탁하여 세밀하게 서술하여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사실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백성들과 병사들을 상하지 않게 함이 仁이요, 낮은 계책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이 智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분발함이 勇이라며 남령의 德을 드러내고 있다. 이야기에 남령이 실세하거나 추방당하는 종말부분이 없는 것은 ⑦부분에서 우심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남겨놓은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작자의 내면에 근심과 우환이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⑧부분에서 ‘하루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不可一日無此君)’라고 하여 담배의 절실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근심을 담배로 해

112) 구영진, 「남령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56면

113) 林泳, <義勝記>, (이가원선, 『이조한문소설선』, 민중서관, 80면)

소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⑨는 평결부 부분으로 문무자의 담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나타난다. ‘연으로 이르자면 죽는대도 버릴 수가 없단 말이오.(至於烟 有死不可去)’, ‘내가 남군에 대한 심정도 또한 다를 것이 없다.(余於南君亦然)’에 문무자의 담배에 대한 애착이 엿보인다. 이러한 문무자의 사고는 그의 다른 작품인 <烟經>에서도 나타난다. <연경>은 1810년 여름 이옥이 찬집한 담배에 관련된 저작으로 이옥의 담배 애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꽃과 달빛 아래 피울 때면 술의 妙理를 느끼게 되고, 푸른 것 붉은 것을 사를 때면 향의 의사를 느끼게 되고, 은으로 된 담뱃대와 꽃을 새긴 담뱃갑에선 차의 풍치를 느끼며, 꽃을 가꾸고 향을 말릴 때면 진귀한 열매의 이름 있는 꽃에 부끄러움이 없으니...나는 담배에 대한 癖이 매우 심하여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령되이 이에 대해 찬술을 하게 되었다.¹¹⁴⁾

담배를 극찬하면서 그 애호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문무자는 평생 자신의 독특한 문체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왕으로부터 거부당하면서도 자신의 주관과 세계관을 고수하면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갈등을 겪으면서 마음의 병이 깊어졌을 것이고, 마음의 수심을 달래는 방편으로 담배를 애용했을 것이다.

섬재의 <남령전>과는 달리 문무자의 <남령전>은 ‘담배가 수심을 잊게 한다.’는 담배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주제로 삼아 담배를 예찬하였다.

114) 李鈺, 『南程十篇』 <烟經>, “薰花吸月 而有酒之妙理焉 燒碧燃紅 而有香之意思焉 銀杯花筒 而有茶之風致焉 培花曝香 而亦無愧珠實[寶]名卉焉…余癖於烟甚 愛且嗜 不自畏笑 妄有撰次”

3. 文學的 特徵

지금까지 살펴볼 때 영·정조대이 문학적 배경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문인군은 정치적·신분적·경제적 기반의 변화로 인하여 소외감과 상실감이 반영된 문학이 창출되었다. 둘째, 명·청 문물의 수용으로 성리학적 규범을 탈피한 개성적이고 참신한 문학이 창출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사회적 제약으로 자의식에 대한 번민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 癖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 반영된 문학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문학적 배경의 특징을 토대로 하여 이 시기의 가전 작품에 드러난 문학적 특징은 1) 다변화된 文人層의 鬱憤吐露 2) 個性的 作家意識의 표출 3) 癖·趣를 통한 自娛의 추구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文人層의 다변화와 鬱憤吐露

영·정조 시기의 산문은 조선중기 숙종조 이래 다양한 변화를 보이며 그 발전 속도 또한 빠르다. 기존의 산문 문학의 범주에서 벗어난 새로운 내용과 형식, 사고가 다채롭게 등장하는데, 이것은 작가의 정치적·신분적·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고려 중반 이래로 문인들은 대체적으로 사대부였지만 영·정조시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크게 변화되었다. 뛰어난 문인이면서 동시에 고관인 작가도 분명 있지만 작가의 사회적 지위가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가장 큰 변화는 신분적으로 양반사대부 외의 집단에 속한 문인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서얼집단에 의해서 활발한 문학 창작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이덕무·유득공·박제가 등이 모여 이룬 白塔詩派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사대부 집안 출신이거나 閥閥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벼슬자리도 얻지 못하고 그렇다고 상공업에 종사하지도 못한 채,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여 적대적인 중간계층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서얼에 대한 사회적 차별대우로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소외되었고, 집권 별열층이 관직을 독점하면서 철저히 권력으로부터도 소외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서울과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서얼 문인들은 同人을 이루고 交流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내적 갈등을 혁신적인 문학을 통해 토로하고 해소하였던 것이다. 사회에 대한 불만은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그래도 반영되어 가전에서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 대표적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雅亭 李德懋의 <管子虛傳>은 대나무의 곧은 모습을 의인화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대나무의 곧은 성질이 선비가 지녀야 할 德이라 보고 그 덕을 예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底邊에는 아정이 서족 출신으로 인해 등용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울분의 정서가 깔려있는 것이라 하겠다. <관자허전>의 평결부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내 일찍이 자허의 곁에 봉황이 내려와 맛본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충실한 덕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은 본래 죽씨였는데 순임금 때에 벼슬했던 자가 성을 管으로 고친 것이다. 관이라는 글자는 竹 밑에 官인 것인데, 그 처음 벼슬했음을 기록한 것이다. 그 후예는 대대로 渭川 땅을 봉토로 하여 살았는데, 시인들이 지금까지 모두 한번 교유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의 자손 중 夷吾라는 자가 있어 권모술수로써 齊桓公을 보좌하였는데 군자들이 관씨의 家風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애석해 하였다. 한나라 말 管寧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魏나라에 벼슬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그 遺風과 여운을 간직하였다. 생성웅의 扶植之恩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찌 이같이 뛰어날 수 있었겠는가. 후에 관씨를 천거한 공으로 大司命을 제수받았다.¹¹⁵⁾

아정은 여기서 자허의 덕과 그 집안의 가풍과 유품을 칭찬하고 있으면서, 또한 생성옹의 扶植之恩을 강조하고 있다. 작가는 대나무의 덕에다 자신을 투영시켜 자신의 재능을 말했는데, 가전 속에서 자허는 생성옹의 천거로 등용되었지만, 현실 속에서의 작가 자신은 아직 그러하지 못함을 이 글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선비를 올바르게 천거해주지 못하는 당시 세태에 대한 원망과 자신이 아직 관료로 진출하지 못했음에 대한 불우함을 假傳을 지어 표출하였다. 작가는 선천적인 자질을 중시하면서도 그 자질을 알아봐주는 사람의 필요성을 강력히 드러내어 벼슬을 추구하는 작가의 관료지향적인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후에 정조는 才識은 있으나 신분적 제약으로 관직에 오르지 못하던 선비를 선정하여 규장각에 검서관으로 임명하였는데, 당시 權臣이던 洪國榮의 추천¹¹⁶⁾에 의해 아정이 그 선두로 뽑힌 것이다. 가전 작품으로 밖에 표출할 수 없었던 울분과 기대가 조금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東谿 趙龜命의 <烏圓子傳>은 고양이의 본성과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의인화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가뭄과 흉년으로 민란한 사회를 평안한 사회로 재건하는 오원자를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시대적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희망을 기록한 작품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던 동계의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만의 정서를 표출시킨 작품이다. <오원자전>의 첫 번째 평결부분은 다음과 같다.

115) 李德懋, 『靑莊館全書』卷4 「嬰處文稿 二」 <管子虛傳>, “余嘗聞子虛之側鳳凰降味其有實德也管本竹氏其仕於舜者改姓管管子竹下管志其始官也其苗裔世世封渭川高人韻士至今皆願一交五霸時有支孫夷吾者以詐術佐桓公君子惜其忝家風漢末有寧者不仕魏猶有遺風餘韻非生成翁扶植之恩豈如是卓乎後以薦管之功拜爲大司命。”

116) 愈晩柱, 『欽英』제 18책 「己亥部」, 규장각자료총서 문학편, 제2권, 1997, 355면, “聞禁將洪國榮啓選李德懋等四人 爲奎章閣檢書官”

오원자는 산군보다 그 형체는 갖추었으나 미약한 자이다. 수염을 번쩍들고 한번 울부짖으면서 호피를 입고 먼저 뛰어오르면 좁도둑들이 모두 쓰러지니 어찌 장하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이에 승헌의 학과 개부의 매가 더불어 같이 비난하고 원망한다. 또한 의부로서 음적하여 李苗라 부르고 그 공을 생략하면서 허물을 드러내니 그 헤아림이 몇몇하지 못하다.¹¹⁷⁾

작자는 오원자가 호랑이보다는 미약하지만 용맹스럽게 달려들어 적들을 모두 소탕하니 그 공이 크고 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조정의 문·무관들과 유학자들은 그의 행실이 陰亂하다고 공격하면서 그의 공을 소략하고 허물만을 드러내려고만 한다. 작가는 그 헤아림이 몇몇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세인들의 공격을 받고 소외되었던 자신을 변호하려는 작업인 것이다. 동계는 사상적으로 당시 학계에서 평생 소외당했던 인물로 가전의 지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아울러 울분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2) 個性的 作家意識의 표출

17세기 후반 이후 서울과 그 부근에 世居하던 士族層을 중심으로 인간과 사물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당시 서울 중심의 학자들은 聖凡心同과 人物性同論을 주장하였는데,¹¹⁸⁾ 이것은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인정하며 聖인과 凡人의 차별을 부인하고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이미 金壽恒에서부터 그 단서가 보인다. 그는 개구리

117) 趙龜命, 『東谿集』 <烏圓子傳>, “烏圓子之於山君盖具體而微者也當其掀髯一呼蒙臯比而先登也鼠竊者皆靡何其壯也世乃與乘軒之鶴開府之鷹同譏寃矣且以義府之陰賊號爲李苗則略其功而揚其過多見其擬不以倫矣.”

118)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사, 1999, 29면 참조

의 시끄러운 울음소리로 잠을 못 이루자 개구리를 쫓아낼 궁리를 하던 중에, 자신의 생각이 인간 중심으로 치우쳐 있음을 인식하고부터는 개구리의 삶 자체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곧 미물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인정한데서 진일보하여, 하늘로부터 稟賦받은 본성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표현해야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사물의 가치에 대한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이 받아들여진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인간과 사물의 내면적 가치는 동등하므로 사물 본연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긍정하여 자연스럽게 살아가야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자연과 사물에 대한 새로운 탐구자세를 가능하게 하였다.

영·정조 시기의 문학은 이러한 사상과 더불어 명말청초 문학의 수용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보인다. 종래 문학의 근엄한 세계와는 다른 정서에 기반을 둔 보다 풍부하고 인간적인 세계를 제시하게 된다. 가전은 형식면에서는 아직 전통적인 산문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전통적 범주를 벗어나 현실세계의 다양한 면을 반영하게 된다. 입전대상의 소재가 전대보다 더욱 확대되었으며, 작가의 개성적인 정서와 주제 의식이 가전을 통해 표출되었다 하겠다.

특히 기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으로 고양이를 의인화하여 <오원자전>을 지은 동계 조구명은 이러한 당시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원자전>의 두 번째 평결부분은 다음과 같다.

신 아무개 말씀드립니다. 신이 폐하를 호위하니 그 위광은 바르고 가지런해서 군대가 길에 나섬에 추호도 범함이 없었습니다. 지름길로 적의 지경에 다다르매, 적들이 소신의 위세를 들은 바에 소리를 죽이고 소굴에 엎드려, 깊고 험난한 것을 믿고서 나무와 돌을 옮겨서 그 큰길 입구를 막았습니다. 신은 길 바깥쪽에 머물러 지키면서 티끌을 일으키고 위용을 드날리는 가운데 발가벗은 몸으로 적들을 욱하

고 꾸짖으니, 그들이 더욱 스스로를 감추면서 그림자 조차 보이지 않았습니
다. …… 이리하여 銳鋒을 거두어 거짓 군대를 퇴각시키는 듯 보이면서 군사
와 말의 입에 나무를 물리고 방울을 떼어낸 채 엎드린 상태로 기다렸습니다.
적이 처음에는 머뭇거리 의심타가 보루에 올라 사방을 살피었고, 이윽고 양
식마저 동이 나자 몰래 기어 나와서 재빨리 훑쳐 내었습니다. 신은 저들의
준비 없는 틈을 덮쳐 회오리처럼 달리고 번개처럼 쳐서 손수 그 괴수를
두들겨 치니 그들은 진 앞에 엎어져 사로잡혔습니다. 세찬 기세가 꺾이고
무너져 와해되는 틈을 타서 곧장 소굴을 두들겨 僞內子 晏氏와 僞太子 奚를
사로잡으니 나머지 잔당은 모두 양손 맞잡고 엎드려 슬피 울었습니다.¹¹⁹⁾

이와 같이 작자는 오원자의 공을 세밀하게 서술하였다. 기존 假傳은 典故를
편철하여 이야기를 구성했으나, 동계는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전투장면과
방책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허사를 생략하고 수식을 억제
하여 짧게 끊어지는 句를 많이 사용하는 소품문의 문체를 사용하였다. 이러
한 장면묘사와 서술방식은 오원자가 묘족을 소탕하는 상황을 생동적이고 사실
적으로 만들어 오원자의 용감한 기개를 부각시켜 주었다.

또한 文無子 李鈺의 <南靈傳>에서도 장면 묘사의 서술방식을 찾아 볼 수
있다. 문무자는 도적 秋心이 난을 일으키는 장면과 南靈이 도적을 무찌르는
장면을 고사의 인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때 靈臺 땅의 도적 秋心이 군사를 일으켜 난을 일으켜 鬲縣과 薺州 등의 지
역을 잇달아 함락시켰고, 方塘의 수비가 무너지면서 천군을 여러 겹 포위하였다.

119) 趙龜命, 『東谿集』 <烏圓子傳>, “臣某言 臣伏陛下 威靈整飭 兵戈在路 秋毫毋犯
徑抵賊境 賊聞臣威 聲戢伏巢穴 馮恃輿隘 運木石 塞其衝口 臣駐札衙外 揚塵耀武
裸身辱罵 賊愈自匿 不見影響……是以收鋒 僞若退師 *枚摘鈴 設伏以待 賊始狐疑
登壘四望 已而糧盡 潛出剽掠 臣掩其不備 颯奔電掣 親搏其魁 偃擒於陣前 乘其洶撓
土崩 直擣巢穴 獲僞內子晏氏僞太子奚其餘殘黨 皆拱伏悲啼.”

천군이 포위망 한가운데서 곤경에 처하자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구원하러 들어오라 불리들었다. 黃卷이 銀海 땅에서 지름길로 구곡하에 넘어 들어오려고 했으나 도적들이 불살라 태워버려 황권은 그만 眉山에 웅크린 채 들어오지 못하였다.¹²⁰⁾

작자는 여기서 근심이 생겨 마음이 심란하여 책을 읽어 마음을 달래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상황을 각각 영대 땅과 추심, 그리고 황권과 은해 땅으로 의인화하고 허구화하여 전개하였다.

령은 명령을 받들어 병부절을 차고 군중에 나와서 금대에다 봉수대를 설치하고 대나무 골짜기의 작은 길을 따라서 나아갔다. 견고한 성을 지나 아름다운 연못을 건너 咽喉關을 넘어 鬲縣에서 도적들과 마주쳤다. 불사르며 쫓아가서 영대의 아랫터로 나아가 적을 크게 무찔렀다. 불은 뜨겁고 바람은 맹렬하여 연기가 적의 요새 쪽으로 휘몰아치자 추심은 불로 뛰어들어 스스로 타 죽고 남아 있는 무리들은 모두 항복하였다.¹²¹⁾

담뱃대에다 담배를 담아 피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담배를 다 피우고 난 후까지의 상황을 묘사한 부분이다. 담배를 남령으로 의인화하고, 담배를 담뱃대에 담아서 불을 붙인 후, 담배연기가 담뱃대를 따라 입안으로 들어가 목구멍을 타고 가슴으로 퍼지는 상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두 장면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이야기에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120) 金鑣, 『瀾庭叢書』卷21 <南靈傳>, “於是靈臺賊秋心起兵作亂連陷鬲縣齊州等地方塘失守圍天君數重困於垓心徵諸將入援黃卷從銀海欲徑趨九曲河賊熾火焚之卷蹙於眉山不得入”

121) 前揭書, “靈聞命仗節臨軍設烽燧於金臺從箕籥谷穴道而行過石城涉華池踰咽喉關遇賊於鬲縣燒走之進戰於靈臺下與賊大鏖火烈風猛烟氛回塞秋心赴火自焚死餘黨悉降”

이러한 장면 묘사는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의 전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효과가 있다. 이로써 假傳이 간략하게 서술함으로써 잃어버리기 쉬운 사건의 논리성을 부여하고 아울러 작가의 정서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 전개와 작가의 정서는 작가의 주제의식을 보다 선명하게 전달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3) 癖·趣를 통한 自娛의 추구

17, 18세기에는 활발한 도시 문화를 배경으로 청나라 문물의 수입과 출판문화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유희적이고 소비적 형태를 띤 문화활동이 활성화되어졌다. 玩物喪志라고 하여 금기시 되던 골동서화의 수집이나 원예취미와 같은 것들이 당시 문인들의 癖과 雅趣로 여겨져 愛好되어졌고, 이러한 특징은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했던 문인들의 문학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유가에서는 문학·서화 등의 기예에 지나치게 빠져들면 心性을 해친다고 하여 경계하였지만, 이들은 書畫·骨董·音律 등의 技藝에 이르기까지 전문성과 독자성을 추구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가전 창작에 있어서도 癖 또는 雅趣라는 문학적 소재로 나타났고, 이러한 문학적 소재를 통해서 가전은 삶의 즐거움과 문장의 文藝的 美를 享有하는 自娛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文無子 李鈺의 <南靈傳>은 당시 문인들의 벽과 취에 의한 自娛的 성향이 강한 문학이라 할 수 있다. <남령전>의 평결부 부분을 보면,

이전에 한모려 담이 남연, 국생과 더불어 망형을 벗하였는데, 한사람만 사귄 수 있다면 어느 쪽을 버리겠냐는 질문에 연은 죽어도 버릴 수 없다고 답하였다. 나의

남군에 대한 심정도 다를 것이 없어 이에 傳을 지어 기록하는 바이다.¹²²⁾

담배에 대해 긍정적이면서 남다른 ‘趣’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무자의 담배에 대한 ‘癖’은 그의 다른 작품인 <烟經>에서도 나타난다. <연경>은 1810년 여름에 문무자가 찬집한 담배에 관련된 저작으로 그의 담배 애호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꽃과 달빛 아래 피울 때면 술의 妙理를 느끼게 되고, 푸른 것 붉은 것을 사를 때면 향의 의사를 느끼게 되고, 은으로 된 담뱃대와 꽃을 새긴 담뱃갑에선 차의 풍치를 느끼며, 꽃을 가꾸고 향을 말릴 때면 진귀한 열매의 이름 있는 꽃에 부끄러움이 없으니 …… 나는 담배에 대한 癖이 매우 심하여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령되이 이에 대해 찬술하게 되었다.¹²³⁾

담배를 극찬하면서 그 애호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後溪 李頤淳의 <花王傳>에서도 당시 생활문화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후계 본인은 특별히 六友에 대한 관심이 깊어 집을 지어 ‘六友’라고 이름을 짓고 정원에 매화와 황화를 심어 감상했음을 볼 때, 비록 서울 중심의 도시생활을 영유했던 문인지식인층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원예에 심취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의 六友에 대한 관심은 벽이나 취의 추구로까지는 아니었더라도 특별했음을 알 수 있다. <화왕전> 본문에서,

122) 前揭書, “昔韓慕廬莢與南烟及麴生爲忘形友人問二者不可兼當去何者韓公沈吟良久曰皆不可去若不獲已其去麴生乎至於烟有死不可去余於南君亦然於是爲立傳以紀或曰其先呂宋人.”

123) 李鈺, 『南程十篇』 <烟經>, “薰花吸月 而有酒之妙理焉 燒碧燃紅 而有香之意思焉 銀杯花筒 而有茶之風致焉 培花曝香 而亦無愧珠實[寶]名卉焉…余癖於烟甚 愛且嗜 不自畏笑 妄有撰次”

작약은 화왕과 함께 죽고, 죽은 간신히 그 절개를 유지하였고 매는 대유령에 버려졌다. 오직 국만이 초연하게 혼자 불행의 사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詩經에 이르기를, ‘밝고 또 밝아서 그 한 몸을 지켜 갔어라’ 했는데 국이 바로 그러하였다.¹²⁴⁾

라고 하여 유독 국화의 절개를 높이 샀는데, 이것으로 볼 때 국화에 대한 그의 평가가 평소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 작품 <園中雜詠> 四首의 <隱逸>¹²⁵⁾이나 <菊花>¹²⁶⁾를 보면 늦게 피어 오래도록 향기 나는 국화를 높이 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화에 대한 관심은 당시 문인들의 원예생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국화를 내세운 것은 당시 국화재배의 인기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 시기에 서울·경기지방을 중심으로 생긴 화훼에 대한 ‘趣’의 추구로 화훼재배가 성행하였는데, 특히 신품종 개량이 비교적 용이한 국화의 재배가 인기가 높았다 한다.¹²⁷⁾ 국화는 재배의 인기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선비들의 雅會나 雅集으로 이어져 문인들의 淸閑과 興趣를 돋우는 구실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작자는 당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매화·죽·작약·모란 중에 유독 국화만을 살려둔 것이라 추측되어 진다.

124) 李頤淳, 『後溪集』 <花王傳>, “芍藥與王俱死竹僅保其節梅棄於大庾嶺惟菊超然獨免於禍難之外詩曰既明且哲以保其身菊有之矣.”

125) 李頤淳, 『後溪集』 卷一 「詩」 <園中雜詠> <隱逸>, “見知拾柳老 尚友採薇賢 晚歲東籬下 含薰祗自全.”

126) 前揭書, 卷二 「詩」 <菊花>

127) 정민, 「18,19세기 문인지식층의 원예취미」, 『19세기 한문학의 재조명』, 한국한문학회, 2004, 34면~38면

IV. 假傳의 文學史的 意義

朝鮮後期 假傳의 文學的 特性과 意義를 정리해 보기 위해서는 조선후기 한문 산문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조선중기에는 崔筮·柳夢寅·申欽·張維·李植 등의 산문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여 활약하였다. 이 시기 산문 작가들은 대부분 唐宋의 六經古文을 典範으로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 지배적이었고, 아직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고문의 대표적 문체인 記나 序 등을 보면 선비로서의 경세의식이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說理性이 짙은 문장들이 대부분이다. 작품 내에서 유가 경전의 문구를 빈번하게 인용하였으며 이것이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식에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산문 경향은 17세기까지 이어지고 18세기 초반에도 ‘유가경전에 근본한 理가 담기지 않은 文은 진정한 문이 아니다’라는 ‘文以載道’의 문학관이 고수되어진다. 사회의 변동에 따른 새로운 문인지식층이 형성되고 명·청의 패사소품문이 유입되어 조선의 문인들에게 대거 수용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문장이 창작되어졌다. 기존의 문에서처럼 效用性만을 중시하여 문장을 짓기보다는 문인들의 個人的 趣向이 드러나는 個性的 文章이 창작되었다.

이러한 문장의 변화는 가전에서 ‘현실을 풍자하여 후세에 밝힌다’는 효용성 위주의 입장에서 벗어나 점차 작가의 개인적인 취향을 드러내게 되었다. 즉 假傳은 고문인 傳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現實諷刺와 戒世懲人の 效用性을 강조하는 문에서 더 나아가 소재를 다양화하고 作家意識을 강조하며 독특한 문장의 특징을 살려 作家의 個性을 확연히 드러내게 된 것이다.

조선후기 영·정조 시대의 假傳은 時代와 現實에 대한 批判과 鬱憤이 담겨 있다. 이것은 기존의 가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가전의 기본적 특징이라 하겠다. 하지만 기존의 작품과 차별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작가 자신의 감정이 심화되어 작품으로 투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계가 <오원자전>에서 오원자가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문·무관들과 유학자들의 지탄을 받는다는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평생 소외당했던 자신의 불우함과 고독감에 대한 울분을 토로한 것이나, 아정이 <관자허전>에서 자허가 생성옹의 천거를 받아 등용되어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자자손손 그 덕을 드날렸다는 이야기를 통해 오랫동안 벼슬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식을 알아봐주는 사람조차 없는 불우함에 대한 울분을 토로한 것 등이 그 일례라 하겠다.

이와 같이 당시 문인들은 현실 사회에서의 疏外와 不遇에 대한 鬱憤을 해소하고 자기 스스로를 辯護하는 방편으로 가전을 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個性的인 作家意識이 표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상과 문학의 변동에 따라 문인들도 개성적인 문장으로 작가의 정서와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오원자전>에서 동계가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서술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정서와 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가전은 自娛¹²⁸⁾의 성격이 가미되었다. 18세기 전반까지도 여전히 載道論에 기반한 문장의 效用性을 강조하였으나, 正祖代로 오면서 개인과 일상의 비중이 가중되면서 스스로 즐기기 위한 閑情 또는 諧謔을 위주로 한 작품들이 이옥 등의 문인들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활발한 도시문화를 중심으로 문인지식층 사이에서 평소 자신들이 嗜樂하는 것에 몰두하는 ‘벽’이나 ‘취’의 추구가 유행하였고, 이것은 가전 문학에도 반영되었다. 문인들의 벽

128) 김영진, 「조선후기의 명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140면~154면 참조

과 취의 추구로 가전의 입전 소재가 확장되어 평소 문인들의 벽과 취의 대상이 되는 애호물을 입전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옥이 평소 즐겨 피우던 담배를 입전하여 <남령전>을 창작한 것이나, 이이순의 六友에 대한 개인적 취향으로 육우를 입전하여 <화왕전>을 창작한 것이 그 일례라 하겠다. 당시 문인들은 경화세족을 중심으로 유행되었던 벽과 취의 대상물을 의인화하여 가전을 창작함으로써 自娛를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조선후기 가전의 특징을 종합해 볼 때 朝鮮後期 假傳은 作家의 獨創性과 個性이 뚜렷이 부각되어 진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가전이 더 이상 효용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문장이 아니라 문인들의 독창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文藝的 性格의 문학 장르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朝鮮後期 假傳의 文學史的 意義라 할 수 있겠다. 기존의 가전이 보편적인 사상과 관심을 표현한 문학이라면 조선후기의 가전은 좀더 主觀的인 입장에서 사물과 세계를 바라보고 그 시선에 포착된 개체와 일상을 개성적으로 표현해낸 문학인 것이다. 보편적인 것보다는 특수하고 기이한 것, 禮敎的이고 模範的인 것보다는 처한 삶에 대한 호소력을 가진 것들을 중심적인 소재로 발탁한다. 표현에 있어서도 典範的이고 새로운 방식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諷刺와 寓意의 간접적인 표현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조선후기 가전의 표현방식이고 그 문학적 특징이며, 假傳을 獨立的 장르로 인정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V. 結論

假傳은 고려 말부터 구한 말까지 오랜 기간동안 각 시대의 문학적 역량이 탁월한 문인들에 의하여 창작되어져 우리 문학사에 적지 않은 자취를 남긴 장르이다. 특히 조선후기 가전은 산문 문학의 영역이 확대되어지면서 그 독특한 양상을 보이며 발달하였으나, 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本考는 朝鮮後期 英·正祖代의 가전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가전의 文學的 特徵을 고찰해 보았다.

가전의 유래를 『문체명변』에서 찾아봤을 때 그 개념을 “傳의 골격에 사물을 擬人化한 후 滑稽를 섞어서 그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었다. 가전은 模擬性·遊戯性·敎訓性의 특성을 지니며, 가전 창작은 주로 문인들이 젊은 시절에 문장을 수련하는 방편으로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고려 말 林椿·李奎報 등의 신흥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창작되어진 고려가전은 불승 慧諶의 佛教 假傳을 제외하고는 儒家的 관념에 따른 전통적인 가전이 대부분 이었다. 이에 비해서 조선전기 가전은 고려가전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입전 대상물의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天君傳>과 같은 心性 假傳과 <朱將軍傳>·<灌夫人傳>과 같은 戲筆的 假傳이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려가전에 비해 내용적 면에서 한층 발전된 면모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조선후기 영·정조대의 문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조선후기 영·정조 시기의 사회적 지위를 상실한 지식 문인층은 정신적 소외감과 고독감이 깊어졌고, 이러한 소외와 고독의 鬱憤을 문학을 통해 해소시켰다. 둘째 明·淸 문물

의 수용으로 인하여 성리학적 규범으로부터 탈피하여 작가의 個性을 추구하는 참신한 문학이 창출되었다. 셋째 자의식에 대한 번민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癖을 추구하였고, 벽의 추구는 그 대상물에 대한 편집증적인 觀察과 考察을 다루는 문학을 창출시켰다.

이러한 영·정조 시대의 문학적 배경 아래, 주요 작가들은 자신들의 개성적 인식을 통해 가전 작품을 창작한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가전의 주요 작가를 5명으로 한정하고 그들의 문학적 특징과 작품을 분석하였다. 문학·사상적으로 이단이라는 지목받았지만, 문장에 능했던 東谿 趙龜命의 <烏圓子傳>, 진솔하고 개성적인 문장으로 알려진 雅亭 李德懋의 <管子虛傳>, 당대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육경고문에 가까운 문장을 지었던 後溪 李頤淳의 <花王傳>, 평생 科詩와 같은 의고문에 심열을 기울였던 蟾齋 李羲老의 <南靈傳>, 그리고 소품문을 추구하였던 文無子 李鉦의 <南靈傳>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가전 작품을 분석하였다.

동계의 <오원자전>은 고양이를 의인화한 작품으로, 이것은 고양이의 성질과 고양이가 쥐의 천적이라는 사실을 假託시켜 장수인 고양이가 도적인 쥐를 소탕하는 이야기를 허구화한 것이었다. 당시의 泯亂한 사회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탁하여 당시 유학자들로부터 배척당했던 작가 자신의 孤獨과 鬱憤을 토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정의 <관자허전>은 대나무를 의인화한 작품으로, 임금이 죽의 虛而外強한 성품, 즉 德을 예찬하고 그를 등용하는 과정을 가탁하여 죽의 일대기를 허구화한 것이었다. 특히 인재등용에 있어서 薦舉의 중요성을 드러내었고, 자신이 오랜 기간동안 벼슬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한 不遇와 鬱憤을 토로했음을 알 수 있었다. 후계의 <화왕전>은 모란·국·죽·작약·매를 의인화한 작품으로, 모란·국·죽·작약·매의 성질을 이용하여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허구화한 것

이다. 善政의 이치를 서술하면서 특히 국의 晚節을 높이 평가하여 신하의 변치 않는 節概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섬재의 <남령전>은 담배를 의인화한 작품으로, 담배의 유입과 활용과정을 중국·우리나라·일본 등의 역사적 사실에 가탁하여 일대기를 허구화한 것이었다. 담배의 폐해를 예견하고 그 남용을 自嘲的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무자의 <남령전>도 담배를 의인화한 작품이지만, 담배에 대한 관점이 섬재와는 달리 긍정적인 작품으로, 담배의 흡입을 통해 마음의 수심을 해소시킨다는 사실에 가탁하여 허구화한 것이었다. 담배의 效用性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다. 평생 문체로 때문에 등용될 수 없었던 작가는 담배를 피워 근심을 잠시나마 해소하면서 느꼈던 즐거움을 문예적 미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조선후기 가전을 분석해 본 결과, 조선후기 문학적 특징을 1) 文人層의 다변화와 鬱憤吐露 2) 個性的 作家意識의 표출 3) 癖·趣를 통한 自娛의 추구 세 가지로 밝혀낼 수 있었다. 먼저 자신의 처지와 세상으로부터의 부정적 인식으로 생겨나는 울분과 소외감을 가전을 지어 토로하고 해소하고 있음을 아정의 <관자허전>과 동계의 <오원자전>에서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세밀한 장면묘사의 사용으로 가전에 논리성을 부여하여 작가의 의식을 개성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동계의 <오원자전>과 문무자의 <남령전>을 통해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癖과 趣의 추구를 가전 창작에 반영하여 현실에서의 불우와 빈민을 해소하고 문장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했음을 이옥의 <남령전>에서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自娛를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후계의 <화왕전>에서도 雅趣가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후기 가전의 문학적 특징으로 더 이상 效用性만의 문장이 아니며, 문인들의 獨創性과 個性을 드러내는 文藝的 성향의 문학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朝鮮後期 假傳의 文學史的 意義가 있음을 밝

힐 수 있었다. 아울러 이것이 가전을 獨立的인 文學 장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基本資料

- 金 鑣, 『薄庭遺稿』, 계명문화사, 1983
- 李德懋,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257, 민족문화추진회, 2000
- 李 鈺, 『李鈺全集』, 소명, 2001
- 李頤淳, 『後溪集』, 韓國文集叢刊, 민족문화추진회, 2000
- 李羲老, 『蟾齋遺稿』, 성균관대학교도서관소장
- 趙龜命, 『東谿集』 韓國文集叢刊 215, 민족문화추진회, 1998
- 『朝鮮王朝實錄』, 민족문화추진회

2. 單行本

- 곽정식, 『한국 전문학의 이해』, 경성대학교 출판부
- 김광순, 『천군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80
- , 「고려 후기 의인문학의 형성과 그 문학사적 의의」,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75
- 김창룡, 『한국의 가전문학』 상·하, 태학사, 1997
- , 『한중가전문학의 연구』, 개문사, 1985
- , 『가전문학의 이론』, 박이정, 2001
- 김태준, 『조선소설사』, 예문사, 1989
-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사, 1999
- 안병렬, 『한국 가전문학 연구』, 이우출판사, 1986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3, 지식산업사, 2001

- 조수학, 『한국의 탁전과 가전』, 영남대학교 출판사, 1987
- 조윤제,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 주종연, 「고려 가전체고」, 『한국 고전문학 장르 연구』, 한신문화사, 1993
- 차용주, 『한국한문학사』, 경인문화사, 1995

3. 一般 論文

- 강명관, 「이덕무 소품문 연구」,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 김광순, 「월헌의 포절군전고」, 『동양문화연구』 4,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77
- , 「한국 의인문학의 사적 계보와 그 성격」, 『어문학』 16·17, 한국어문학회, 1867
- 김군대, 「이옥의 문학사상 연구」, 『현상과 인식』 4, 한국구비문학회, 1997
- 김영진, 「이옥 연구(1)」, 『한문교육연구』, 한문교육학회, 2002
- 김창룡, 「〈화왕전〉 전역」, 『한성어문학』 9, 한성어문학회
- , 「〈오원자전〉 평역」, 『한성어문학』 10, 한성어문학회
- 김현룡, 「국순전과 국선생전」, 『국어국문학』 65·66, 국어국문학회
- 신기형, 「가전체문학논고上·下」, 『국어국문학』 15·16, 국어국문학회, 1956
- 안병설, 「고려 가전의 형성과 그 성격」, 『북악한학』 1, 국민대학교, 1978
- , 「가전에 대한 이견 산·속고」, 『명지어문학』 7·8,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5·1976
- , 「이조심성가전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학논총』 2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78
- , 「전의의 문학적 수용」, 『한국학논총』 2,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79.

정 민, 「18,19세기 문인지식층의 원예취미」, 『19세기 한문학의 재조명』, 한국한문학회, 2004

조동일, 「가전체의 장르규정」, 『장암지현영선생화갑기념논총』, 호서문화사, 1971

조수학, 「가전연구」, 『어문학』 29, 한국어문학회, 1973

주종연, 「고려가전체 考」, 『한국 고전문학 장르 연구』, 한신문화사, 1993

4. 學位 論文

강민구, 「東谿 趙龜命의 文學論과 散文世界」,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구영진, 「南靈傳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권정화, 「한국 가전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군대, 「李鈺의 文學理論과 作品世界の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김상렬, 「李鈺의 傳文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김영진, 「조선후기의 명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박영미, 「李德懋의 傳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박보연, 「李鈺의 散文에 대한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송병렬, 「擬人體 散文의 發達 樣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연해진, 「麴醇傳系 假傳作品 構造研究」,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이규운, 「정조의 문체반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명진, 「靑莊館 李德懋의 文學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이태희, 「趙龜命의 散文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 최순기, 「이덕무의 『청비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한해철, 「權韞의 托傳과 假傳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ABSTRACT

A Study on the "Gajuen" in the latter term of Choson

Her, Ji Young

Dept. of Chinese Classics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reatise is a study of Gajeon, which is a type of classical literature, and I am going to clarify its significants as a literary historical achievement by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 and illuminating enlargement and aspect based on those of written in the reign of King Yongjo and King Jeongjo, which is the late period of Chosen dynasty.

In the first chapter, I researched a general meaning of Gajeon and the existing former studies that are examining genre and designation of Gajeon before concrete analysis of Gajeon and found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e second chapter, I examined a general concept, a characteristic of Gajeon and its development. After searching the concept of Gajeon in "Jeon", I adjusted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 such as imitative, sportive and instructive tendency. Then, I divided a term that covers from the late period of Koryo, which Im Choon wrote <Gooksunjeon>, <Gongbangjeon>, to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to Koryo and the former term of Chosen dynasty so that we can see how Koryo Gajeon and Gajeon of the former term of Chosen dynasty had developed.

In the third chapter, researching the subject's creative age that is the reign of King Yongjo and King Jeongjo in the late period of Chosen dynasty, I analyzed some prominent writers and literary works at that

times. By illuminating literary background based on the newly appeared culture of Kyoungwha Sejok in this period, I clarified its literary characteristic showing different aspects from former times, though there are many writers who are notorious for a heretic of literature and ideology.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ng above, I classified a literary characteristic of Gajeon into three things such as exposing resentment for various classes of literary men, expressing individual author's consciousness and pursuing self-satisfaction through Pyuk[癖]and Chui.[趣]

In the forth chapter, I classified a literary characteristic of Gajeon in the late period of Chosen dynasty into three by assaying the third chapter and illuminated its historical meaning in literature. The literary characteristic of Gajeon in the late period of Chosen is as following : firstly, Gajeon delivers criticism, anger, and sardonic, secondly, a tendency of pursuing self-satisfaction was introduced, lastly, authors started concentrating on a individual and a daily life in their works. This tells us that Korean Gajeon developed and expanded its genre as a pure literature with originality and individuality of literary men, so it is of great worth in literary history.

In the fifth chapter, I synthesized the forth chapter and corroborated a historical meaning in literature of Gajeon in the late period of Chosen dynasty, that is, Korean Gajeon had developed from effective sentences and are a genre of a pure literature expressing originality and individuality of literary men.

附 錄

趙龜命의 〈烏圓子傳〉

烏圓子姓苗氏史失其名不知其所自出或曰山君之裔也或曰堯時三苗氏之遺種也
有相之者曰是虎頭類班定遠當食肉封侯少爲羣盜推埋劫掠閭里間 烏圓子雖禽獸行
平性馴親附人人亦愛撫之時子氏之族作亂穴人墻壁發人俯藏天下苦之皇帝震怒命
將吏設機調捕子氏學齊景公兵法夜行晝伏終不得其要領皇帝聞烏圓子有爪牙材募
使討之烏圓子距踊三百曲踊三百曰此吾任也平日嗜肉及有是命奮曰昔岳鵬舉喜飲
酒而約輿諸軍至黃龍塞痛飲吾亦滅子氏喋血而後食肉也遂進大戰殲其族焉皇帝大
悅下詔曰皇帝制詔丞相御史比者子氏縱橫徒黨寔繁乘暮夜無備探囊拊箠在處竊發
宇內騷然夫耕不得食婦織不得裳乃茲苗某厲齷目肉視乎彼始匿其形終鼓其勇鷹
揚如師尙父一舉而執渠魁再舉而清巢穴餘者震驚俱烏獸散朕其自今紓宵衣之憂民
其早寢晏起無鷄鳴犬吠之警朕甚嘉焉夫祈父稱爪士江漢美虎臣 朕甚慕焉其拜苗某
爲執金吾行大司寇事爵烏圓子比關內侯其所俘獲悉賜之俾食肉寢皮以快其心於戲
猛獸在山藜藿不採不以無盜而養不捕之臣爾尙蓄銳奮威毋若乃祖有苗之頑而饕餮
焉同時有韓盧者亦以軍功顯與烏圓子等列烏圓子爭功不相能面折之曰子功狗也然
烏圓子禮遇殊絕賜上殿不趨既卒祭于蜡烏圓子善測侯常以瞳子開闔分子午卯酉鼻
冷煖驗陰陽之至其天姿絕異於人如此性檢一毛裘終身不易顧陰賊著於心卒發於睚
眦常矯制殺絳冠子人以是短之太史公曰烏圓子之於山君盖具體而微者也當其掀髯
一呼蒙臯比而先登也鼠竊者皆靡何其壯也世乃與乘軒之鶴開府之鷹同譏冤矣且以
義府之陰賊號爲李苗則略其功而揚其過多見其擬不以倫矣楮先生曰烏圓子戰功偉

然以有禽獸行史臣抑之但述其詔制用衛霍傳例甚非所以褒功紀實之意也今錄軍事奏以見其概曰臣某言臣仗陛下威靈整飭兵戈在路秋毫毋犯徑抵賊境賊聞臣威聲戢伏巢穴馮恃輿隘運木石塞其衝口臣駐札衝外揚塵耀武裸身辱罵賊愈自匿不見影響臣竊計以爲若深入重地搜捕剿滅不惟地形未諳蹊谷幽暗急卒難攻易致駭竄且其衝口脅窄難容大衆進退失便誠有狼狽之憂不如誘引使離其巢然後擒之爲合兵機是以收鋒僞若退師一枚摘鈴設伏以待賊始狐疑登壘四望已而糧盡潛出剽掠臣掩其不備颯奔電掣親搏其魁偃擒於陣前乘其洶撓土崩直擣巢穴獲僞內子晏氏僞太子奚其餘殘黨皆拱伏悲啼臣惟獸心獷許終不革面毋俾易種以長猖蹶並其赤子糜碎無遺膏血狼籍妖塵廓清臣折衝尊俎之間行師衽席之上不日獻馘兵革無虧斯皆賴陛下指授社稷洪福臣某知免罪戾誠惶誠恐謹奉表以奏。

李德懋の〈管子虛傳〉

管氏出自淇澳子虛字名擇其先有隱於嶰谷者黃帝使伶倫拔擢之製黃鍾之律其子孫茁盛林林叢叢散處于海內者難以枚舉中葉遷於渭川者頗有清德孤竹君最拔萃是生子虛者子虛茁芽秀茁有龍腰犀角之姿孤竹稱之曰此管氏之青琅玕也虛心潔外得一貫之道窺夫子之牆嘗爲嵇康等七賢李白等六逸主人蓋取諸鴉蘇子瘠俗之喻袁尹率人之訪王子猷之不可一日無此君之語皆粲人牙頰也周時有生成翁者聞子虛之風忘肉味而語之曰子豈非固而樹德者耶虛而無心者耶貞而有節者耶傲雪之丈夫凌霜之處士吾皆得而培植之何見君獨晚也是時黃帝陛下鑄煦皞之治施雨露之澤庭植祥桑塔榮瑞萸月建青陽盛德在木乃親率三槐九棘迎春於東郊下詔求林下之賢曰朕自卽位雖有花之王草之帝獻媚於前不足以資朕德昨夢東君賚予一箇臣娟娟之姿宛在朕目中爰命文與可繪厥像使占夢卜之占曰不剛不柔虛中堅外古人之風君子之節其

當出仕有真哉之操歟今以像旁求于野有能進之如茅斯拔以助涼德爰以好爵糜之生成以管生應之曰出野臣擇孤介之士也今若簡拔此子既霑雨露庶不與草木同腐偃草上之仁風資蒲蘆之敏政臣亦瑩於蟠木之薦淇澳之詩其德咏荊揚之貢其用著仰之彌高鑽之彌堅又感皇英之烈孟宗之孝萊公之忠足以副陛下詔矣書奏上大悅五月十有三日輦入上林簣土成壇延以爲賓子虛見上植立不拜左右向風而前使之拜上以手揮之曰勿前勿拜對此子可除胸中棘三斗矣仍命曰朕結此芳隣有使萋莠蕭艾孽牙其間者朕當斬伐焉於是封其族渭川千畝與千戶侯等上每於月夜與諸王訪之見子虛諸子錦綉豹文岫岫而立顧諸王而歎曰父子兄弟當如此也有子八人曰筆曰箭曰簫曰籟曰簡曰竿曰筇曰簾生成嘗言昔有荀筍氏八龍此可謂管氏八龍仍稱之曰筆短小穎銳可作黑頭中書但戒其夭折箭奮發忘返鋒穎太露可戒其摧挫簫協和神人音律是究可進于帝庭籟欽干祭祀粢盛是飭爲世之器任者乎簡長在右室蘭臺古今之治亂可考也竿長自猗猗老於江湖遯世而無悶者乎筇隱遯者流老成人是求周流四方之相乎簾博施之資券舒推移禮防自持者也後皆如符節之合亦有一女疎通暢豁貌如其心封蘄春懸夫人甚有寵從上甘泉宮避暑已而上頗厭其節目之促數仍爲皮湯婆所妒有班扇之怨降夫人號命曰青奴限明年五月棄置以待其悔過更收用云管子有蠹心之疾枯槁而卒享六十歲贊曰余嘗聞子虛之側鳳凰降味其有實德也管本竹氏其仕於舜者改姓管管子竹下管志其始官也其苗裔世世封渭川高人韻士至今皆願一交五霸時有支孫夷吾者以詐術佐桓公君子惜其忝家風漢末有寧者不仕魏猶有遺風餘韻非生成翁扶植之恩豈如是卓乎後以薦管之功拜爲大司命

李頤淳の〈花王傳〉

王姓姚名黃系出洛陽豐肌秀色光華炸爍眞富貴相也衆咸愛戴之推尊爲王春二月卽位于上林苑甘泉宮建元甘露色尙青以寅月爲歲首行夏之時也土階不過三等紹堯之儉也顏如渥丹其君也哉三年遣青鳥氏迎魏紫爲后六宮誦桃夭詩以美之王若曰嗚呼我聞曰昔三后之純粹固衆芳之所在至治馨香感于神明今予受命于天恭默不言惟永終是圖疇若上下草木僉曰芍藥名最古王乃旁求于天下藥處廣陵之野爰立作相王置諸其左右命之曰爾惟近侍朝夕滋養予若藥不瞑眩厥疾不瘳藥進于王曰德不孤必有隣易曰拔茅茹以其彙征吉西湖有處士淇澳有君子江城有隱逸不仕者曰梅曰竹曰菊此三子者皆有清修苦節眞天下之第一流也可召而致王乃嫣然笑使人以弊聘之菊不至梅與竹至拜梅爲蜀郡太守竹爲通平侯王曰咨爾梅先王之取人也以德不以象以實不以華若和羹用汝王曰咨爾竹爾惟直臣爾交修予有過則面折臨亂而不撓四方風動惟乃之休王分三人職旣而頌曰予惟德薄不能贊神明之德得靈蓍以掌卜筮致莫莢以治星曆進屈軼以斥佞人孰謂才不借於異代歟王於是搜英擷芳盡掇天下之名流芝蘭滿庭桃李盈門各任其職不言而化于斯時也風雨時陰陽調熙熙然如在春臺壽域之中矣王春秋鼎盛奢靡日甚聞海棠有傾國之色以蝴蝶爲使迎而至王見之美而艷置于別宮日夜耽樂竹諫于王曰臣聞內作色荒未或不亡是以吳王以西施沼其宮唐皇以貴妃遷于蜀是不可以不戒也王不聽一朝蓐收從西方金風驪至鐵馬橫奔肅殺之氣盈於天地所過摧拉無有遺類王神慌色慘殪于商郊國遂以亡顧片時之繁華等槐安之夢芍藥與王俱死竹僅保其節梅棄於大庾嶺惟菊超然獨免於禍難之外詩曰旣明且哲以保其身菊有之矣太史公曰富貴繁華惟人之所欲而亦人之所當戒也姚魏之所以冠於花中者以其富貴之可尙也及其摧殘也反不如梅與菊者以其富貴之易尙也噫人之所貴者獨不在於晚節乎。

李羲老의 〈南靈傳〉

南氏靈其名字烟茶在昔包羲氏受驪馬之圖有臣曰屯屯觀雲雷之象以經綸此南之始也鼻祖曰南正重與火正黎爲友仕於茹毛之世其後子孫爲指佞所搆放之菹澤遂失系於神農經夏殷之際有以滋味要君者食邑於漳南中葉以下以漳南顯時人樸盖未趣味移也至奏始皇帝既并六國方士徐福等上書願得童男女五百人入海求不死藥始皇詔丞相斯中書令高曰漳南族耗六穀力且羸軟不以時應蒙恬將軍之役其悉行無聽留者於是舉其族號咷浮碣石去世不知所止止蜻蜓島而王大小六十島關紅椒而居者南氏爲蕃於是國有治容亂而生蠶自言悅于里人盡里人之情悅于鄉人盡鄉人之情悅于國人盡國人之情悅于天下盡天下人之情而與南氏子醮於桑林之閒生子曰澹婆澹婆稍長隨海舶涉我嶺表邊海諸州人有悅而蓄之然所在火鳥之流吾邦有識之士心怪之對馬主橘康廣梗我邊南產得入居內地時朝廷不知也壬辰倭寇以鳥銃犯京以國沃焦澹婆爲先後之也亂已朝廷覺乃有禁條獨太學士一人者愛之謂消食辟葷方不之鋤以遠由是散居八方嶺高靈湖鎮安洪川之東甲山之北族最盛其尤盛者三登成川之間澹婆贅於鑰店田姓家寔生靈靈生而寧馨自稱嶺南部頭破東坡好讀南華經故云南生員是時鐵木天子新有中國我邦送一枝將兵援登萊州靈以上番禁衛營炮手應募爲忠州林將軍帳下李將軍懷冰藻識非常畫置蓮幕參軍於是二將軍更吹噓折衝樽俎能剖析絲毫諸蕃見之皆心艷而口嗑嗑軍中謠曰不願封萬戶侯但願一見南參軍始鐵木天子聞靈使翰林學士不花持節召靈靈長不滿數尺衣裘蒙茸形容槁索詣軍門則辭以蓬蒿之賤天子更詔曰禮野夫黃冠其以卉服上見靈遂累然而進天子望見曰朕聞海上有水桂金光之仙非其族耶稍益近使前青蒲而諭君子之交其臭如蘭天以神物授寡人也靈伏不謁執白簡者糾之天子命毀藁自此寵幸氤縕口含鷄舌身惹磷鱸日夜與名王大人侍天子左右出則驂乘入則聯床郡國機紐重事未嘗或泄焉天子由是益賢之遂拜五花判事賜銅山一爐是時草昧新浩芟夷羣雄一榻之外皆他人鼾睡也靈以乙丙夜進臥內天子掀虬髯擁鱸唾珠怡愉然與神爲謀屏梅婕妤柳八子時虛無人天子或如廁心動桃苑

不先而以靈隨之溷穢畢辟嘗宴羣臣於蓬萊殿天子御九釘盤將以解醒紅鞮鞞綠昌明無可意者靈以此時携湘妃淚痕竹竇香烟一株呼吸直通帝座楊州牧進江心菱花天子照龍鬚而喜曰靈術也白變黃黃變黑何拭爲馬肝石此皆靈事君之大較也先時天竺莎車等四十餘國不附天子大會諸將曰疇能往征五甲首以上侯無有應者靈奮然對曰臣靈請得一纓係頸而來天子嘉之曰不意頗牧近在禁中立拜羽林大將軍隸七校兵材官依飛俱焉於是衣團花之袍乘蒲梢之馬出屯細柳天子用周條侯故事介冑不拜靈度黃榆磧五千餘里草木震蕩直至居延城城圍三月不下靈顧無他畧嘗讀父澹婆書善五行陣其法東方曰木青龍將軍司筒西方曰金白虎將軍司盞北方曰水玄武都蔚司瀆南方曰火朱雀都尉司爇中央曰土麒麟校尉司吸澹婆受玄蘇玄蘇受龍高突先生事在倭畧靈候黃葦風令諸軍蓐食食後齊發攻之烟焰漲天諸國望風灰燼乃竺人大駭相謂行行避火德王城下之日與諸都護焚香誓曰孤以秒芒之躬幸一舉也諸國破竹耳其書露布馳傳上之天子既受捷大悅詔促駕入玉門關靈近臣星夜班帥帶甲十萬鹵鹹三千級張羽葆鼓吹前矛至太極殿是時大饗蕊珠宮歌彤弓之詩胙青茅之土皇帝若曰惟卿芝以龔馥杜曰忘憂南風之薰解吾民之愠春草之綠歸王孫之魂韓將軍之勇焉俛出袴下毛先生之智矣請處囊中瑪瑙霞飛玄蟬承金莖之露琅玕日烘黃鶴引玉簫之風是以畜之俳偕弄以嬌艷溫筠風調八叉文手而凝神若蘭春愁一纏頭而含笑烟火萬里與百姓同之春色九重豈一日無也非直有此衆美文重之以多能鐵籠得全齊宗人獨稱龍蛇自燒晉子推不言至若五行陣出而讀鬼谷黃石之符者皆批頰退矣滋味進而江南荔芰大宛葡萄皆掩鼻退矣嘉乃茂功庸茲枚卜其進資卿金紫光祿大夫華蓋殿太學士食湯沐三十郡加封爲烟香伯賜柅鬯一卣金屋一區爰及苗也無替采田云云夫人曰獨孤氏青州刺史末之苗也夤靈之貴出入椒掖賞賜無計靈則薰於富貴日飲阿母療髓凝酒四鍾絳臺山霞實散二劑香澤常津津也繇是諸侯之客四夷之賓駢湊鱗萃靈雖位槐棘嘗折節下人以此益有聲價靈素善草楷天子命書柳學士薰風自南來韓制誥清烟散入五侯家之句因賜草聖號一日獨孤夫人曰人生如葉頭露且石火光陰揭來不直一文錢所以成

者天四時之序成功者去卿卿此其時乎靈意悄悄遂杜門自稱赤松子學吐納吸噓之術天子無靈則食不甘味寢不安席受羣臣朝作愀然色靈不得已春朝秋晴非大朝會未嘗止於金門帝以乾封二年玄枵之月宮車晏駕嗣皇帝用玉匣從殉靈以先帝命與焉詩人憐之曰交交黃鳥止于棘如可贖兮人百其身獨孤氏不舉舉孽子曰澹排蕢爲嗣襲封爵夫人以壽終其居三登成川者細瑣輕燥以苞苴爲業貨雪繭絲紋帶漢驪皮花鞋江蓼窠閩薑封纒以黃 席逐月刺公卿門用左右鑽其穴關以西謹問單子差中軍帖座首皆其力也故金海九節花斑釜山八模壽福平康雪霜紙匣得西產而著甲山之產峭峻稱烘川之種澹泊號唯高靈鎮安之產峭伐閱每以冬莫夏箠之時一入京洛膏粱子弟猶未慙慙接也此時許進士者築室南山下臥鷄窠中日與南氏娛自號烟客其後城西有李處士空十畝之宮而舍之常於博山爐上敲文武火誦太玄之草歌紅荳之花招靈之魂魂兮歸來北方不可以娛方其澹與泊遭顏如芙蓉頂如醍醐居若空城志若流水臥讀圖書之奧天根月窟來往胸中起以濡珊瑚之管抽松花之牋墨淋漓也其言曰妻視於梅寒不能衣弟蓄以菊饑不能餐靈魂靈魂十日不食牙頰自香三冬不裘黍律吹暖皆爲靈善頌者也嗚呼南之種上下二百載而顯千枝萬葉綿蔓如也然獨南靈者絲入中華名垂簡策豈其時耶抑所遇者幸耳東抵萊夷南走秦粵西通邛笮北至窮髮之則顯榮凡性之臭味者莫不嗜好皆靈子孫之流落者也始則里人疑其僻問于鄉人鄉人曰彼也善與人交安得謂之僻既而鄉人疑其泛問于國人國人曰彼也不言而信安得謂之泛既而國人疑其邪問于天下天下人曰彼也不味安得謂之邪於是乎情於里人鄉人國人天下人而盡悅之皆治容言也治容死於返魂樹下至今叩其葉香聞數百里云太史公曰大禹疏儀狄宣尼放鄭聲二聖人者幾後世之以翹孽聲色蠱人也夫今有七八歲者與南氏嬉其父雖日撻而禁之不得嗚呼草尚以風。

李鈺의 〈南靈傳〉

南靈字烟其先有淡巴菰者當崇禎間以醫術聞嘗游九邊治戍卒寒疾甚神以功封南平伯子孫遂氏焉靈其枝葉也爲人短小精悍黃黑色性甚剛烈習兵書善於火攻天君御國之三十二年夏六月大霖雨踰月不止於是靈臺賊秋心起兵作亂連陷鬲縣齊州等地方塘失守圍天君數重困於垓心徵諸將入援黃卷從銀海欲徑趨九曲河賊熾火焚之卷蹙於眉山不得入或薦靈可將天君乃使火正黎持節拜靈爲神火將軍平南侯使火速赴難靈聞命仗節臨軍設烽燧於金臺從箕箒谷穴道而行過石城涉華池踰咽喉關遇賊於鬲縣燒走之進戰於靈臺下與賊大鏖火烈風猛烟氛回塞秋心赴火自焚死餘黨悉降天君大悅使使冊靈爲西楚霸王加九錫其冊曰向者朕否德自貽心腹之憂賊秋心與其徒長白髮夢不成等侵蝕郡縣勢甚熾盛終至劍臨防意之城矢及神明之舍股髀之郡莫能相救肺腑之臣無以自力與念國事惟危惟黷尙賴卿奮起艸莽升聞馨香威行橫艸若火烈之具舉功成破竹解鐵桶之深圍整頓於呼吸之間收平於灰燼之餘終使烟塵不警風艸俱偃朕惟火炎昆岡玉石易混兵不血刃惟賊是驅使民不知有兵火之憂則此卿之仁也火攻素稱下策而乃能推孫武之五計灰曹操之萬艘則此卿之智也一鼓而壯士慄怒三驅而狂寇烟散斬關奪路奮不顧身則此卿之勇也卿有此三德宜居第一茲命爲西楚霸王賚以銀花鐵奩一以爲卿第宅黃油紙匣一以爲卿衣服緣珠囊一以爲卿節旄白板方櫃一以爲卿菜邑青銅爐一以爲卿封疆鐵刺刀一以爲卿尙方劍三孔風穴一以爲卿圭瓚卿其欽哉於戲不戢必自焚尙其念哉靈雖受封西楚而時秋心之徒憂心猶隱伏於氣海故不許靈之國靈仕于朝兼進香使榷茶使酒泉太守權重一世天君嘗指而語曰不可一日無此君花史氏曰昔韓慕廬焚與南烟及麴生爲忘形友人問二者不可兼當去何者韓公沈吟良久曰皆不可去若不獲已其去麴生乎至於烟有死不可去余於南君亦然於是爲立傳以紀或曰其先呂宋人。